



| | |
|--------------------------------------|--|
| 코스피 2285.06 (+4.44) | 코스닥 819.29 (+14.51) |
| 금리 (국채 3년) 2.11 (+0.06) | 환율 (USD-달러) 1125.90 (+5.90) (12일) |



[해설]
마트 번신은 무죄
유통 3사
'신삼국지' 각축전
03

카드론·현금서비스의 불편한 진실

(연간 기준)

제도권 금융사가 '24% 초고금리' 저신용자에 급전대출 1.2조 수익

업계, 고금리상품 취급 늘려 현금대출 통해 수익 확대 서민 대상 고금리 장사 지적

카드사들이 올해 들어 단기간 대출(현금서비스)과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고금리 상품 취급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품을 이용하는 대상 대부분이 중·저신용자여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장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을 보면 2015~2016년 1분기 1조 원대, 2017년 1분기 1조

1623억 원대였던 7개 전업 카드사(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의 현금서비스·카드론 수익(매출)이 올해 1분기 1조1879억 원으로 뛰어올랐다. 지난해 대비 800억 원가량 증가할 수 있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경우 카드론 수익은 올해 1분기 2128억 원으로 2016~2017년 1분기 1900억 원대보다 10%이상 증가했다. 현금서비스(823억 원)까지 합하면 1분기 수익은 2950억 원에 육박한다. 2위인 삼성카드도 카드론이 2015년 1219억 원대에서 2018년 1분기 1600억 원대로 증가해 지난해(1448억 원) 대비 10%이상

늘었다. 중위권 카드사들도 카드론 매출 확대를 통해 수익을 확대했다. 2015-2017년 우리카드 카드론 수익은 525억 원, 661억 원, 716억 원으로 서서히 증가하다 올해 1분기 774억 원을 기록했다. 롯데카드도 지난해 잠시 주춤했던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비중을 확대해 각각 854억 원, 246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이 연평균 15%이상의 수준인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확대에 나선이유는 서비스 수수료 인하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보다 수익이 짝짱한 현

금대출을 통해 수익을 피하려는 의도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은 (중금리대출상품 이용이 어려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여신금융협회 상품공시에 따르면 카드론은 16~24%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절반 이상은 18~24%금리 대에 분포했다. 18~24%의 금리를 받는 신용등급은 주로 6~10등급이다. 고금리 대출상품에 고 금리를 내야 하는 중·저신용자들이 몰려있는 셈이다. 특히 현금서비스의 경우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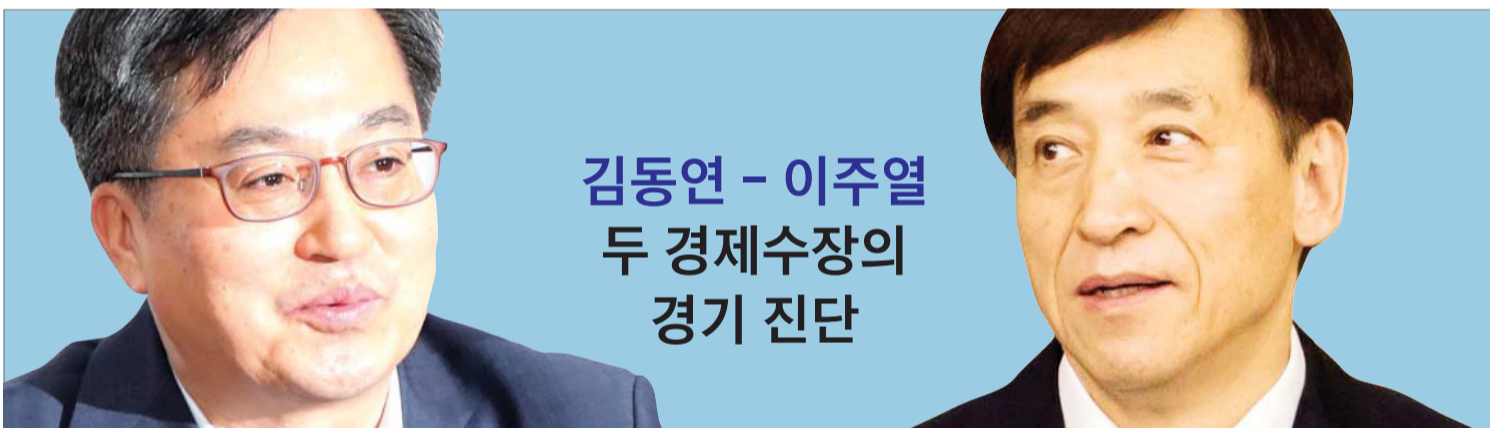
<분기별 카드사 수익 비교(2015-2018)>

(단위:백만원)

| 금융회사명 | 구분 | 2015년1분기 | 2016년1분기 | 2017년1분기 | 2018년1분기 |
|--------|-------|-----------|-----------|-----------|-----------|
| KB국민카드 | 카드론 | 105,997 | 123,488 | 149,148 | 169,108 |
| | 현금서비스 | 45,178 | 41,194 | 41,199 | 45,944 |
| 롯데카드 | 카드론 | 77,061 | 82,949 | 80,672 | 85,490 |
| | 현금서비스 | 27,779 | 24,153 | 22,800 | 24,626 |
| 삼성카드 | 카드론 | 121,971 | 139,596 | 144,867 | 161,837 |
| | 현금서비스 | 43,901 | 44,300 | 43,203 | 47,355 |
| 신한카드 | 카드론 | 163,157 | 189,056 | 194,860 | 212,805 |
| | 현금서비스 | 98,516 | 94,184 | 85,474 | 82,334 |
| 우리카드 | 카드론 | 52,596 | 66,135 | 71,614 | 77,481 |
| | 현금서비스 | 27,244 | 29,763 | 28,117 | 27,343 |
| 하나카드 | 카드론 | 56,793 | 54,162 | 63,310 | 70,489 |
| | 현금서비스 | 28,611 | 24,440 | 26,104 | 26,773 |
| 현대카드 | 카드론 | 128,189 | 127,518 | 123,600 | 123,873 |
| | 현금서비스 | 27,968 | 30,999 | 31,266 | 32,539 |
| 총합 | | 1,004,961 | 1,071,937 | 1,106,234 | 1,187,997 |

금리를 내야 하는 22~24%대 금리 구간에 삼성카드의 49.9%, KB국민카드의 47%, 현대카드의 41.3%의 회원이 몰려있었다. 전체 회원의 3분의 2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전성인 흥익대 경제학 교수는 "용도가 좋은 사람에게 는 할부금리를 높게 받고, 카드빌

을 막기 위해 카드대출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에게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금리를 받아 장사 한다"며 "신용등급별 이용형태에 따라 다른 금리로 수익을 얻는 영업 행태가 계속되지 않게 시스템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김동연 - 이주열 두 경제수장의 경기 진단

“최저임금, 고용에 영향 시장 고려해 신축적으로”

긴급 경제현안간담회

정부가 최근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내수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긴급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고용지표 부진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우리 경제에서 매우 아픈 부분”이라며 “일자 리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으로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한다”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대책에 내수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한 첫 단추로 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관련법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김 부총리는 최근 일부 업종의 고용부진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도 있다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경제수장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부작용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과 55~64세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 업종과 연령층에 영향이 있는지는 조금 더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해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에 대해 김 부총리는 “통상 갈등이 확대하면 중국 경기가 둔화하고 세계 경제가 위축할 수 있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 미국 수출 비중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 리스크가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최신용기자 grandtrust@

“올 성장률 전망 0.1%p ↓ 무역분쟁 등에 금리동결”

한은 '하반기 경제전망'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하며 국내경제를 기존보다 한층 어렵게 내다봤다. 기준금리도 1.50%로 동결했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을 2.9%, 내년 2.8%로 각각 0.1%포인트 내렸다. 지난 4월 전망 때 내놓은 3.0%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국발 글로벌 무역분쟁이 확대된 점과 상반기 지표가 다소 부진했던 점을 조정 이유로 밝히며, “올해 국내경제는 투자가 둔화하겠지만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소비도 개선 흐름을 보이지만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문별로 보면 설비투자 증가율은 2.9%에서 1.2%로 낮게 전망했다. 지난해 반도체 등 정보통신 분야 투자가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일부 업종의 투자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치도 건물 착공면적 감소세와 SOC 예산 감축 등의 영향으로 -0.2%에서 -0.5%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1.6% 오를 것이라던 전망을 유지했다. 현재 배럴당 70달러 중반을 기록하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2019년에는 1.9%를 나타낼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도 4월 전망 때와 같이 2.7%로 제시했다. 양호한 소비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 정책이 소비 증가세를 뒷받침할 것이라던 시각에서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당분간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점검해 통화정책 완화 기초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알바보다 수입이 적다나... 편의점주, 동맹휴업 결의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정부 정책 재검토 강력 촉구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가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시 전국 동시 휴업을 추진하는 등 대정부 정책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12일 오전 전편협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업계는 한계에 달해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편의점 가맹주들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재논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 계획 철회 및 최저임금 동결 ▲영세·중소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 등이다. 전편협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점주들은 아르바이트보다 적은 수익으로 연명하고 있으며,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하반기부터 잠재적 폐업점포의 연쇄 폐업이 예상된다”면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점주들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투자금 손실에도 불구하고 폐업할 수밖에 없어 실업자 및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 국내 주요 편의점의 올해 상반기 순증 점포수(개점수-폐점수)는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가량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1월부터 6월까지 편의점 CU의 순증 점포수는 394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942개에서 급감했다. G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S25는 지난해 1048개에서 올해 343개로 감소폭이 더욱 컸다. 세븐일레븐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00여개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올해 점포 순증수가 감소한 데엔, 폐점수가 증가한 것보다 개점수가 감소한 것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점포 개점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과 맞물려 편의점 시장의 성장이 정체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편의점 점주들은 ‘생존권’을 요구하며 필요시 대정부 정책의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편협은 13일까지 최저임금위심의 내용을 우선 기다린 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16일부터 전국 7만개 편의점의 동시 휴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자사고 취소는 부당” 대법원 판결에 진보교육감 멘붕

대법원, 서울시교육감 청구 기각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부 권한

교육청 “판결의 과잉 해석 경계...
지정취소 등 전권 달라” 거듭 요청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시교육청의 6개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당시 교육부의 직권취소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 당사자인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과잉 해석을 경계한다”면서 “자사고 지정취소 등의 전권을 시·도교육청에 위임해달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교육부도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각 시·도교육청에 이관해 검토하고 있어, 향후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한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고 패소를 선고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14년 10월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6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교육부가 교육감의 재량권을 넘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 /이범중 기자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교육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장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

교육감이 주무장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시·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을 지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13 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들도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각 시·도교육청에 이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판결로 2014년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고,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결은 자사고 평가에 있어 교육청 권한을 제한하고자 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전제로 자사고 평가를 진행하고자 했던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의 입장 차이에서 이루어진 쟁송

에 대한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의 동의권을 없애고, 이에 관한 전권을 교육청에 이양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혹여 이번 판결이 자사고 폐지를 대법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과잉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특히 “교육부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교육청이 고교체제의 수직적 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자사고 지정취소 등에 대한) 권한 배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사고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사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폐지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이범중 기자 hys@metroseoul.co.kr

삼바 분식회계 ‘고의’ 판단 임원 해임권고·검찰 고발

증선위 5차 심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5차 심의 끝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또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한 행위를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기준 변경 건에 대해선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다며 행정처분의 명확성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지배권 변동에 관한 지적사항은 조치원안을 가지고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증선위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안건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을 필요하다”며 “금감원이 처분의 내용을 명확히 한 뒤 조치안을 추가로 내면 다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되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soul91@

윤석현 금감원장, 첫 타깃은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혁신성장 발 벗고 나서야”

증권사 CEO 간담회 개최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의 만남으로 업계 회동을 시작했다.

윤 원장이 취임한 이후 첫 대면이지만 최근 배당사고와 공모도 주식에 대한 결재불이행 사태 등이 있었던 만큼 내부통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질타와 함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CEO 간담회’를 열고 “최근 증권업계에서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증권업계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자본시장에 요구하는 첫 번째 과제는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내부통제의 성패는 무엇보다도 금융회사 스스로 관심과 책임의식을 갖고 내부통제를 조직문화로 체화하는 데 달려있다”며 “CEO를 비롯해 조직내부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역시 “금융통제시스템 사건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왼쪽에서 네번째)이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장 및 증권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업계 스스로도 몇 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32개 증권사 CEO가 참석했다. 국내 주요 증권사 가운데서는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증권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시작부터 일반투자자와 스타트업, 취업준비생, 증권사 직원 등이 증권업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담은 영상물을 상영했다.

윤 원장은 “창업 초기에 자금조달을 하지 못해 3년 이내 도산하는 기업의 비율이 62%에 달할 정도로 자본시장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며 “

자본시장과 증권업계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년일자리 창출도 촉구했다.

그는 “증권업계의 미래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디지털 금융전문가의 채용과 육성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타 업권에서 지지부진한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력도 필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경총 신입 부회장에 김용근 車산업협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김용근(62)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사진)을 신입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전형위원회를 열고 김용근 자동차협회장을 해임된 송영중 전 부회장을 잇는 새 부회장으로 뽑았다.

이번에 새 부회장으로 선출된 김용근 자동차협회장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차관보), 한국산업기술재단 이사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등을 지냈으며 2013년부터 자동차협회를 이끌었다.

앞서 경총은 지난 3일 임시총회에서 전



임인 송영중 부회장을 파행적 사무국운영, 경제단체 정체성에 반하는 행위 등을 사유로 해임했다. 회의를 마친 손경식 회장은 김용근 회장에 대해 “경력이 많고 경제·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 아니라 국제적인 활동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총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이끌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LH, 인도 스마트시티 사업 교두보 확보

뭄바이에 대표 사무소 개소

LH가 지난 10일 국내 건설 공기업 최초로 뭄바이에 LH 인도 대표 사무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엔 박상우 LH사장을 비롯해 주인도 뭄바이 총영사,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주) 정부 차관 및 갈리안-뎀비블리시(시) 시장 등 3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LH는 이번 인도 대표사무소 개소로 인도의 건설시장 및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시장조사와 현지 개발관련 법규 및 제

도 등의 정보 수집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도 100대 스마트시티 사업’의 안정적 진입을 꾀하고 향후 국내 민간 건설업체들의 인도 시장 동반 진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도 100대 스마트시티 정책’은 지난 2014년 5월 출범한 인도 모디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올해 4월 기준 100개의 스마트시티가 인도 전역에 지정됐다.

이에 LH는 한국-인도 간 도시 인프라 개발사업 전반의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인도의 경제·물류 중심부인 뭄바이가 위치



지난 10일 LH 인도 대표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왼쪽 세번째부터) 박상우 LH 사장, 김성은 주뭄바이 총영사, (왼쪽 두번째) Bhushan Gagrani 마하라슈트라주 차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H

한 마하라슈트라주를 우선 참여 검토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채신화기자 csh9101@



베어로소핑 8일 오후 고객이 줄 선 모습.

/이마트 홈플러스 스페셜 목동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양평점 어반포레스트.

/롯데마트

마트 변신은 무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유통 3사 '新 삼국지' 각축전

이마트 '베어로소핑'

10~30대 고객 오프라인 이끌어 사진 촬영장소·흡연실 등 마련

홈플러스 스페셜

소용량·대용량·차별화 상품 갖춰 매대간격 넓혀 '고객편의성' 우선

롯데마트

1층 '골든영업존' 휴식공간 마련 가격할인 창고형 할인점 '마켓D'

이마트의 노하우와 젊은 감성을 관통한 유머코드가 뒤섞여 탄생한 베어로소핑이 10~30대 고객을 오프라인 마트로 이끌고 있다.

이마트의 베어로소핑은 개점 11일만에 누적 방문객 10만명(총 11만명)을 돌파하는 성적을 냈다. '사진 촬영, 절대 환영'이라는 매장 콘셉트에 걸맞게 각종 SNS에서도 관련 게시물이 2만5000여건을 돌파하는 등 온라인에서도 입소문을 타고 있다. 개점 후 첫 주말에는 입장 줄이 150m까지 늘어서 고객 안전을 위해 입장 제한 시간을 늘 정도였다.

주렁주렁 정성없이 매달린 상품들, 곳곳에 나붙은 '키치(Kitsch)'적 유머코드의 문구들, '혼돈의땅진점 블랙홀'이라는 이 매장 콘셉트가 10~30대 감성을 관통하면서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젊은 고객들을 다시 오프라인으로 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잘 정돈된 매장에서 직원들에게 상품을 추천받기보다 복잡하게 매장을 구성해 직접 보물찾기 하듯 상품을 찾아보고 놀듯이 자유분방하게 만지고 써볼 수 있는 '언택트(Untact, 비접촉)' 쇼핑을 선호하는 10대~20대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쉬쉬하며 숨어서 판매했던 성인 용품을 양지로 이끌어내고, 흡연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해 지하철 객실 콘셉트의 흡연실을 도입하는 등 파격적 시도들이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

특히 젊은층이 다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다라는 점이 고무적이다.

실제로 이마트가 지난 열흘간 매장을 방문해 신세계포인트카드를 사용한 고객 데이터와 매출 등을 분석한 결과, 20대와 30대 고객 비중이 각각 17.3%와 36.8%로 절반 이상(54.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20대 고객이 많은 베어로소핑 특성상 전체 구매 고객의 30% 가량이 신세계포인트카드 회원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마트(32.2%) 대비 21.9%p 높다.

이처럼 베어로소핑은 출범 초기 성공적인 안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동대문 두타에 2호점이 문을 연다.

◆1인가구부터 자영업자까지 '홈플러스 스페셜'

홈플러스 스페셜은 슈퍼마켓에서부터 창고형 할인점까지 각 업태의 핵심 상품을 한자리에서 고를 수 있는 '하이브리드 디스카운트스토어'다. 1인가구와 핵가족이 찾는 소용량 상품부터 대용량과 차별화 상품까지 갖춰놓아 고객들로부터 반응이 뜨겁다.

베어로소핑이 혼돈 속 재미찾기에 중

점을 뒀다면, 홈플러스 스페셜은 고객 편의를 우선으로 생각했다. 일단, 매대 간격을 기존 홈플러스 매장보다 22%까지 넓혀 쇼핑 공간을 확보했다.

매대 사이 좌우 공간이 넓어진데다, 물건을 높이 쌓지 않아 주부들도 꼭대기에 진열된 상품을 직접 집어들 수 있게 했다.

상품 종류는 고객이 가장 많이 찾는 상품을 중심으로 기존 2만2000여종에서 1만7000여종으로 줄였다. 용량 차이별로 제품 수는 줄이되, 브랜드 수는 줄이지 않아 쇼핑에 불편함이 없게 했다. 오히려 베스트셀링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하다보니 오히려 필요한 상품을 고르기 수월해졌다는 평가다. 홈플러스 스페셜에서만 단독으로 선보이는 차별화 상품 수도 2400여종에 달한다.

고객 반응은 매출로 드러났다. 지난달 오픈한 홈플러스 스페셜 대구점과 서부산점은 오픈 후 지난 8일까지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대구점과 서부산점을 찾은 고객들이 한번에 쇼핑한 금액(객단가) 역시 전년 동기대비 약 45% 증가했다.

홈플러스는 13일 동대문점을 비롯해 서울과 수도권, 주요 광역도시와 전국 주요 핵심상권을 중심으로 기존 점포들을 빠르게 '홈플러스 스페셜'로 전환해 다음

달 말까지 10개 점포, 올해 안에 20개 점포로 확대할 계획이다.

◆롯데마트, 체류시간 늘려 매출 신장

롯데마트는 고객이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매장 내 체류시간을 늘려 매출을 높이기 위한 시도다. 현재 서울 양평점, 서초점, 대구 칠성점, 김포 한강점 등은 '영업 골든존'인 1층에 휴식공간인 '어반 포레스트'(Urban 4 rest)를 마련해 고객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서울양평점은 일 평균 6000여 명의 고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이는 비슷한 규모와 상권의 롯데마트의 일 평균 고객 수(5000여 명) 대비 20% 가량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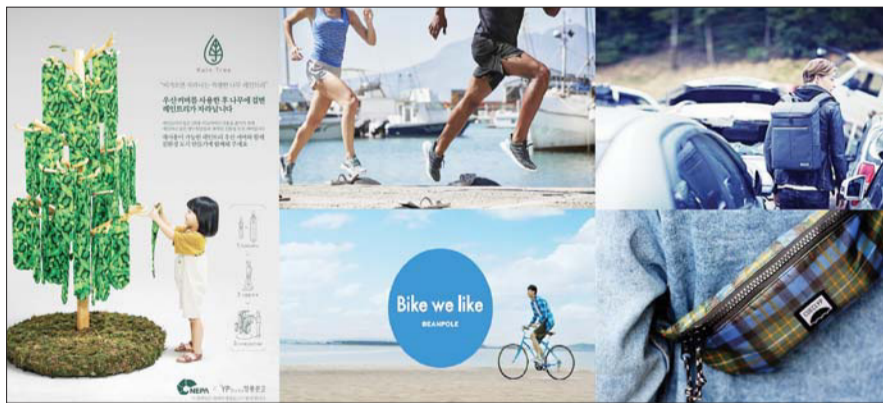
어반포레스트를 통해 유입돼 쇼핑을 즐기는 고객들의 매출이 양평점 전체 매출의 14%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 매출 구성비를 살펴보면, 40대가 아닌 30대의 매출 비중이 전점 대비 8% 이상 높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밖에 롯데마트는 식재료를 구입하면 그 자리에서 조리해주는 '그로서란트 마켓', 가격 할인에 중점을 둔 창고형 할인점 '마켓D'를 선보이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유입을 시도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재활용 넘어 새활용... 유통업계 '업사이클링 바람' 분다

네파 재활용 가능 우산커버 제작
아디다스 플라스틱병으로 러닝화
빈폴 버려진 자전거 고쳐 기부캠페인
컨티뉴 '폐차 가죽' 활용 가방·지갑
큐클리프 '우산 천' 제품원단 사용



네파 레인트리 캠페인(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아디다스 팔리 러닝화, 컨티뉴 가방, 큐클리프 가방, 빈폴 바이크와라이크 캠페인.

/각사

이클링 우산 커버를 제작, 이를 기존의 비닐 우산 커버 대용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레인트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네파는 '비가 오면 자라나는 특별한 나무'라는 의미를 담아 나뭇잎을 형상화한 재활용 우산 커버와 우산 커버를 건조·보관할 수 있는 나무 모양의 '레인트리'를 국립중앙박물관, 영풍문고, 갤러리카페 등 문화·예술 공간에 설치했다.

◆해변에 버려진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해 만든 아디다스의 러닝화

스포츠브랜드 아디다스는 해양환경보호단체 팔리포더오션(Parley for the Oceans)과 파트너십을 체결, 해변에 버려진 플라스틱을 소재로 사용한 러닝화를 출

시했다. 최근에는 러닝, 축구에 이어 아웃도어, 오리지널스 등 팔리 라인을 전카테고리로 점차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으며, 향후 의류와 신발을 생산할 때 버려진 플라스틱(석유가 원재료가 된 플라스틱)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팔리 러닝화 한 켤레에는 평균 11개의 재활용 플라스틱 병이 사용된다. 아디다스는 팔리와 협업하여 해안 지역에서 수거한 병을 재활용하여 기능성 의류 및 신발을 제작하고 이를 통해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고자 만든 A.I.R.전략(avoid: 방지, intercept: 차단, redesign: 재설계)을 실행하고 있으며,

제품 제작 시 지속 가능한 재료의 사용을 더욱 늘려 환경 혁신을 새로운 산업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의 버려진 자전거를 업사이클링해 섬마을에 기부한 빈폴

빈폴은 브랜드 상징인 자전거를 활용한 지속가능성 캠페인을 선보였다. '바이크 위 라이크(Bike we like)'라는 이름의 이번 캠페인은 고객들의 인지 속에 자리잡고 있는 자전거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도시에 버려진 자전거를 업사이클링해 섬마을에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자전거 재활용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두 바퀴 희망 자전거'와 협업을 통해 도시에 버려진 폐자전거를 수거, 업사이클링을 거친 자전거 100대를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에 기부했다. 자전거 코스가 조성되어 있지만 관리의 어려움으로 관광객의 자전거 대여율이 낮은 증도에 기부해 자전거의 원활한 관리 및 보관 소신규 조성은 물론 신안 군청과 협의해 유지, 보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동차 가죽 시트와 안전벨트를 이용해 만든 컨티뉴의 가방과 지갑

사회적 기업 모어덴의 액세서리 브랜드 컨티뉴(Continew)는 폐차의 가죽을 활용한 가방과 지갑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 이 회사를 창업한 최이현 대표는 자동

차에 마찰, 고온,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튼튼한 최고급 가죽을 사용하지만, 이를 재활용 할 수 없어 폐차 시 버려지는 자동차 가죽을 활용하고 싶다는 아이디어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가죽은 소각도 되지 않고, 매립만 가능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소재 중 하나이다. 컨티뉴는 이렇게 폐차장에서 버려지는 카시트 가죽과 안전벨트, 에어백 등을 이어 붙여 가방과 지갑 등 액세서리로 재탄생 시켰다. 앞으로는 가방을 넘어 작업복, 축구화 등 신발도 제작할 예정이다.

◆망가지고 버려진 우산을 수거해 가방과 지갑 등 패션 잡화를 만드는 큐클리프

업사이클 브랜드 큐클리프(CUECLYP)는 각 구형의 재활용선별장에서 소각을 앞둔 우산의 천을 분리해 제품 원단으로 사용한다. 아끼던 우산이 찢어져 버리기 아까웠던 디자이너가 파우치로 만들었다니 방수도 되고 편리한 소품으로 재탄생했던 경험을 살려 만든 브랜드다. 우산천 외에도 버려지는 가죽, 필름, 파우치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큐클리프(CUECLYP)라는 브랜드 명도 업사이클(upcycle) 영문자를 재조합해 완성됐다.

/김민서기자 min0812@

최근 편의성과 간편함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사용해 온 일회용품들이 환경오염은 물론 자원낭비까지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맞춰 향상을 뜻하는 업그레이드(upgrade)와 재활용을 뜻하는 리사이클(recycle)이 합쳐져, 폐기물을 본래 가치보다 높게 재활용하는 것을 뜻하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월 정부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과 비닐봉지 사용량을 35%,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소시키고, 재활용률은 기존 34%에서 7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SKT 이 끌고 KT 네이버 카카오 밀어주는 시스피커 시장... 세계 5위 '코앞'

SKT '누구' 조명 결합한 '누구캔들'
KT '기가지니' TV와 홈서비스 연계
네이버 '프렌즈' 홈IoT 기능 접목
카카오 '카카오i' 가전·자동차 공략

SK텔레콤에서 인공지능(AI) 스피커와 조명등이 결합된 제품인 '누구캔들'을 내놓으면서 국내 AI스피커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12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올해 한국 시장은 3%의 점유율(약 300만대)로 캐나다를 제치고 5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금까지 국내업체가 선보인 제품은 ▲SKT 누구 ▲KT 기가지니 ▲네이버 프렌즈 ▲카카오 미니 등이다. 이동통신사 가운데 LGU+는 네이버와 협력해 클로버를 기반으로 한 U+ 우리집AI를 내놓고 있다. 이들은 업체 상황에 따라 각자 독특한 개성을 불어넣고 있으며 먼저 고객의 마음에 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시장은 통신사인 SK텔레콤 누구와 KT 기가지니가 주도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추격하는 구도라



왼쪽부터 SKT '누구캔들', KT '기가지니', 카카오의 '카카오미니'.



/SK텔레콤·뉴스시스·카카오 홈페이지

고 본다. 최근 국내 업체들이 스마트홈 외에 호텔과 편의점 등으로 AI 스피커 영역을 확장하는 가운데 제품들이 더욱 각 분야에 맞게 개성적으로 발전할 여지도 있다.

우선 SKT가 선보인 누구는 원통형 전용기기에 대화하듯 말을 걸면 의미를 이해해 답해준다. 텀러벨이나 크리스탈, 아리아 같은 몇 가지 이름 중 하나를 선택해 부르면 이용할 수 있다. SKT는 이후로 누구 미니, T맵X누구, 준X누구, BtvX누

구까지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내놓았다. 주 용도로 멜론과 같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재생하고, 조명이나 제습기 같은 가전 기기를 제어하는 데 쓰인다.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휴대폰 찾기를 하거나 알람과 일정관리 등의 비서 역할도 수행한다.

누구와 누구 미니 등을 합친 누적판매량은 50만대 수준이며 새로 출시한 누구캔들은 올 연말까지 20만대 판매를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누구 캔들은 물론

기능을 더욱 향상한 제품을 연달 출시할 예정이다.

KT 기가지니는 IPTV와 인공지능을 결합시킨 형태로 TV와 연계한 홈비서 기능을 제공한다. 고품질 오디오 하만카돈 스피커를 채택했고 카메라가 탑재되어 풀 HD급 영상통화와 홈캠을 지원한다. 이후 기가지니2, 기가지니LTE 등의 파생제품을 내놓았다. 기가지니의 누적 판매량은 80만대 수준이며 올해말까지 150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용 서

스, 호텔용 서비스를 따로 만드는 등 기기 보급에 힘을 쏟고 있다.

네이버는 자사 하드웨어인 '프렌즈'뿐 아니라 클로바 AI 형태로 서비스를 타회사에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네이버와 손잡고 네이버 AI 스피커 '프렌즈'에 LG유플러스의 홈IoT 기능을 접목한 U+우리집AI(프렌즈플러스)를 출시했다. 4월에는 후속 시리즈 프렌즈플러스 미니언즈를 선보였다. 또한 네이버는 샤오미와 업무협약을 맺고 샤오미의 스마트홈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AI 플랫폼인 '카카오i'를 핵심으로 집안과 자동차 환경을 공략하는 전략을 택했다. 하반기 출시될 카카오희용은 아파트, 가전과 기타 가전기기·설비 등을 손쉽게 연결하고 제어할 수 있는 플랫폼이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용 가능하다. AI스피커인 카카오미니를 활용해 음성으로 기기조작을 명령할 수 있고, 카카오희용 전용 앱으로 빠르고 편리한 연동기기 통합제어를 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정식 출시한 카카오미니는 준비된 물량 20만대가 소진되며 판매를 마쳤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삼성, QLED TV '번인현상 없음' 공인

비디오-테스트랩 협업해 테스트 실시
국제 측정 표준에 근거해 고강도 진행



독일 최고 권위의 AV 전문 평가지 비디오(Video)가 유력 평가기관인 케네트 테스트 랩과 협업해 삼성 QLED TV에 대한 번인과 잔상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의 2018년형 QLED TV 전 모델이 번인·잔상 프리 인증을 획득했다.

삼성전자의 2018년형 QLED TV 전 모델이 독일 유력 평가기관에서 번인·잔상 프리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독일 최고 권위의 AV 전문 평가지 비디오(Video)가 유력 평가기관인 케네트 테스트 랩과 협업해 삼성 QLED TV에 대한 번인과 잔상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다.

이번 테스트는 디스플레이 화질 측정 국제 표준인 정보디스플레이 측정표준(IDMS)에 근거해 고강도로 진행됐다. HDR 영상에 높은 밝기는 디스플레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HDR과 게임 등 화질 평가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항목도 평가해 신뢰성을 높였다.

비디오지는 이번 테스트와 관련해 수천 유로나 하는 돈을 들여 고급 TV를 구매했는데 번인 현상이 나타난다면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번 테스트 결과 QLED TV에서는 번인이나 잔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번인(Burn-in)이란 같은 화면을 장시간 켜 두거나 방송사 로고와 같은 동일한 이미지가 한 위치에서 오랫동안 반복 노출됐을 시 화면에 잔상이 남는 현상이다. 화질 성능을 크게 좌우하는 프리미엄 TV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로 꼽힌다.

게다가 번인과 잔상 등 다양한 화질 이슈는 높은 명암비와 밝기를 가진 HDR 콘텐츠나 이러한 화면들이 빠르게 전환되는 게임 콘텐츠에서 특히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평가 결과로 삼성 QLED TV가 모든 화질 평가 기준에 있어 우수함을 입증했다.

/안병도 기자

아이가 그린 동화가 TV로... '아이들나라 2.0'

LG유플러스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
IPTV 유아서비스 플랫폼 선포



LG유플러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1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에서 IPTV 유아서비스 플랫폼 '아이들나라 2.0'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1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에서 IPTV 유아서비스 플랫폼 '아이들나라 2.0'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페어를 방문한 고객은 행사장에 마련된 체험부스에서 U+tv 아이들나라 2.0에 새롭게 추가되는 유아 전용 콘텐츠를 출시 전 미리 경험해볼 수 있다. 우리집IoT 및 U+우리집AI 서비스도 체험 가능하다.

다음달 출시 예정인 U+tv 아이들나라 2.0은 기존 아이들나라에 유아 전용 콘텐츠인 ▲웅진북클럽TV ▲생생체험학습 ▲AI전화놀이와 예비·초보 부모를 위한 ▲부모교실이 추가된 서비스다.

웅진북클럽TV는 누리과정 영역별 도서 및 예비초등 필독서를 포함한 웅진북클럽 주요 전집 콘텐츠를 TV로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생동감 있는 영상과 음성을 지원해 책에 관심 없는 아이도 독서에 흥미를 느끼게 도와준다.

AR를 활용한 체험학습 서비스인 생생 체험학습에는 미술과 음악, 신체 놀이 등 아이들의 창의력과 감성을 키워주는 콘텐츠가 탑재됐다. 내가 만든 그림책 서비스는 자녀가 직접 그린 동화 캐릭터가 TV 동화책 속 주인공이 돼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줘 호기심을 자극한다.

IPTV 리모콘에 말하면 영어·중국어·일본어로 번역해주는 AI전화놀이는 외국어 말하기 교육에 유용하다. 부모교실

은 예비 부모와 초보 부모를 위한 서비스로 임신·출산·육아·교육 분야별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우리집IoT 및 U+우리집AI 서비스 체험존에서는 실시간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환기시점을 알려주는 IoT공기질알리미, 아이의 착석 자세를 확인하고 자세 교정을 돕는 링스마트 IoT 의자 등 육아에 도움이 되는 IoT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

/안병도 기자

정유업계, 국제 유가상승에 2Q 실적 기대

전년비 영업익 큰 폭 상승 예상

국내 정유기업들이 유가 상승 압박을 딛고 올 2분기 어떤 실적을 내놓을 지 눈길을 끈다. 최근 상승하고 있는 국제유가 압박에 정유업계는 이번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상승한 영업이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두바이유의 3, 4, 5월 유가는 각각 배럴당 62.74달러, 68.27달러, 74.1달러로 매달 상승세를 지속해왔다. 브렌트유(66.72달러→71.76달러→77.01달러)와 WTI(62.77달러→66.33달러→69.98달러)도 같은 기간 상승했다. 원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자 증권

사들은 국내 정유업계의 2분기 실적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 정유업계 1위 SK이노베이션은 2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12조9000억원, 영업이익 9300억원을 각각 달성할 것으로 관측됐다.

에쓰오일도 2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6조1500억원, 영업이익 5000억원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현대오일뱅크는 매출 4조9500억원, 영업이익은 43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반기 전망은 밝은 편이다. 무엇보다 국제유가 간 가격 격차가 좁아지는 동시에 여름철 차량 이용이 늘어나는 등 석유제품 시장이 성수기에 돌입하는 것도 한 몫 한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SKT-현대차, 에너지 효율 관리 '맞손'

열병합발전 시스템·FEMS 솔루션
울산공장에 에너지 관리 체계 구축

SK텔레콤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위한 열병합발전 시스템과 FEMS 솔루션 구축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FEMS는 ICT를 이용해 공장 내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하루 평균 6000여대의 자동차를 생산해 내며 공장

부지만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한다. 이번에 구축한 발전 시스템으로 생산하는 전력은 연간 1100만kWh로 예상된다. 요금으로 환산하면 약 20억원이다.

양사가 구축한 발전 시스템은 열병합발전 방식이다. LNG를 연소하는 가스터빈을 이용해 공장에 필요한 전력과 스팀을 공급한다. 특히 FEMS 솔루션을 적용해 발전의 모든 공정을 자동화했기에 무인 운전도 가능하다.

이번에 구축한 열병합발전 시스템은 그간 울산공장이 운영해온 디젤 비상 발전

기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 발전기 관리 효율성 향상과 정전 발생 시 대응시간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약 50억원의 노후 발전기 투자 대체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양사는 발전 시스템 및 FEMS 도입이 온실가스 감축이 배출권 구매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기존 발전기의 경우 사용량 감소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과 외부 전력 구입 감소로 하절기·동절기 피크기간 국가 전체 전력 수급 조절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텔레콤 김성환 스마트시티유닛장은 "선도적인 IoT 기술을 통해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사회적 가치도 함께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병도 기자

렉서스, 하이브리드로 소리없는 돌풍... 10월엔 '신차' 출시

상반기 3만대 판매 된 'ES300h' 신형 출시 예정... 신차효과 기대 하이브리드 캠페인·이벤트 진행

도요타의 고급브랜드 렉서스가 하이브리드 인기에 힘입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ES300h 신형 모델의 출시를 앞두고 있어 신차 효과도 예상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렉서스코리아는 올 상반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6276대를 판매해 수입차 브랜드 판매 순위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년 동기대비 7%가량 상승한 수치다. 렉서스코리아의 판매 성장은 간판 하이브리드차량인 ES300h와 NX300h가 견인했다. 이 두 차량은 국내 출시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입소문을 타면서 판매 증가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ES300h는 출시 첫째(2012년) 944대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2013년 2875대를 시작으로 2014년 4386대, 2015년



렉서스 코리아 타케무라 노부유키 사장(오른쪽)이 올해 10월 국내 출시를 앞둔 신형 ES300h를 소개하고 있다.

5006대, 2016년 6112대, 2017년 7627대를 기록하며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4165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수입 하이브리드차로 처음으로 3만대를 돌파했다.

국내 수입 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시장을 이끌고 있는 NX300h

는 지난해 이 분야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한 이후로도 꾸준한 판매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만 702대가 판매됐다. 또 지난 2016년 출시된 렉서스 RX 450h는 실용성을 앞세워 올 상반기 544대 판매되며 꾸준히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

다. 4세대 RX450h는 렉서스에서 가장 발전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돼 있다.

이에 렉서스코리아는 그동안 하이브리드 차량을 경험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위한 체험 행사 진행을 통해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선다. 렉서스코리아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캠페인으로 '더 파워 오브 h'를 진행한다. 하이브리드 드라이빙의 즐거움과 퍼포먼스를 알리기 위해 기획된 캠페인으로 전국 렉서스 전시장,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렉서스 하이브리드 피플을 찾습니다' 이벤트는 총 28명에게 1주일씩 렉서스 하이브리드 차량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렉서스 홈페이지 '하이브리드 피플'에서 7종의 하이브리드 라인업 중 차종을 선택하고 전장장을 내방해 시승하면 된다. 7월 한 달 간 응모가 진행되며 다음달 3일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당첨자가 발표된다.

한편 렉서스코리아는 신형 ES300h를

오는 10월 출시하고 국내 시장 판매에 드라이브를 건다. 렉서스코리아에 따르면 신형 ES300h는 고강성 저중심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기존 ES가 계승해온 '높은 수준의 승차감'을 더욱 단단하고 고급스럽게 진화시켰다. 또한 이전보다 휠베이스를 키워 더 넓고 여유로운 뒷좌석 공간을 확보했다

외관 모습은 예리하게 꺾이는 세로 핀형상의 스핀들 그릴과 컴팩트한 트리플빔 LED 헤드램프로 단정하면서도 샤프한 프론트 룩을 표현, 측면에는 쿠페와 같은 루프 형상과 입체적인 캐릭터 라인을 적용했다.

특히 새롭게 개발한 2.5L 직렬 4기통 엔진은 흡기효율 향상 및 고속연소로 높은 수준의 열효율을 실현한다. 렉서스 첨단 안전 사양인 렉서스 세이프티 시스템 플러스, 총 10개의 SRS 에어백, 사각지대 감지모니터(BSM) 및 후측방 경고 시스템(RCTA) 등 최첨단 안전 사양이 기본으로 적용된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영사기 없는 영화관' 전세계 극장서 새바람 배기가스 제로... BMW '뉴 C 에볼루션'

삼성전자 '오닉스' 출시 1년 만에 10개국 진출

'영사기 없는 영화관'으로 불리는 삼성전자 시네마 LED(발광다이오드) '오닉스'가 등장 1년 만에 전세계 10개국으로 진출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오닉스는 영화 산업의 본고장인 미국 할리우드를 비롯해 중국과 독일 등에도 잇따라 설치되면서 전세계 영화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오닉스는 작년 7월 서울 잠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 8개국의 12개 영화관 등에 설치됐다.

국내에서는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과 부산 롯데시네마 센텀시티점에서 선보였으며, 해외에서는 작년 10월 태국 최대 영화관 프랜차이즈인 '시암 파라곤 시네플



지난 4월 멕시코시티의 시네맥스 극장에서 삼성전자 현지 직원들이 삼성 '오닉스' 브랜드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렉스'에 처음으로 수출됐다.

이후 미국 로스앤젤레스, 중국 상하이, 멕시코 멕시코시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에서 선보였다.

이달에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와 중국 상하이 등 2곳에 새로 설치됐다.

이외에도 멕시코시티, 오스트리아, 인

도 등에도 조만간 설치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영화산업 박람회 '시네마콘 2018'에서 시네마 LED의 브랜드를 '오닉스'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한 뒤 마케팅 전략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국내 공식 출시... 2490만원부터

BMW 그룹 코리아의 모터사이클 부문인 BMW 모터라드가 프리미엄 전기 맥시 스쿠터 '뉴 C 에볼루션'을 국내 공식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BMW 뉴 C 에볼루션은 지난 부산모터쇼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됐다. 배기가스 제로의 이점에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더해 새로운 차원의 주행 경험을 선사한다. BMW i3에 장착된 것과 동일한 94Ah 용량의 새로운 배터리가 장착돼 최대 123.8km까지 주행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무공해 주행은 물론 도심 및 광역도시 지역에서 뛰어난 실용성을 제공한다.

뉴 C 에볼루션의 수냉식 전기 모터는 즉각적이고 빠른 응답을 자랑하는 변속기와 함께 출발과 함께 지체 없는 가속력을 보여준다. 정격 출력은 19kW(26마력) 최고 출력은 35kW(48마력)이며 최대 토크는 7.35kg·m다. 최고속도는 129km/h에서 전자적으로 제한되며 정지상태에서 50km



BMW 뉴 C 에볼루션. /BMW그룹코리아

h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8초다.

뉴 C 에볼루션은 다이캐스트 알루미늄 배터리 케이스가 기존 내연기관 모터사이클의 스틸 프레임에 대신한다. 통합형 충전기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기 또는 일반 가정용 전기 콘센트에서도 충전 가능하며 충전 시간은 220V 10A 기준으로 완충까지 약 5시간 10분이 소요된다. BMW 뉴 C 에볼루션의 가격은 2490만원(VAT 포함)이다. /정연우 기자 yw964@

한진그룹, 교육부 인하대 징계조치에 '반박'

"과도한 조치, 법적 대응 검토"

한진그룹이 교육부의 인하대 징계조치 발표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또 한진그룹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적극 소명해 나갈 방침이다.

12일 한진그룹은 일우재단이 부담해야 할 추천 장학생 장학금을 인하대에 지원했다는 주장에 대해 "일우재단의 장학 프로그램 지원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몽골과 캄보디아 등 저개발 국가의 국가 발전을 선도해갈 인재 양성 지원 및 이를 통한 우리나라와 우호증진을 위해 장학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인하대가 이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병원 1층 커피숍을 저가로 빌려줘 임대료와 보증금 5800만원을 손해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재 해당 커피숍과는 이미 계약이 해지된 상태다.

대한항공 측은 "커피숍 임차료는 병원 1층의 다른 점포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해당 커피숍에 임차료 혜택을 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실제 인하대병원 1층 점포 임차료를 비교해보면 문제가 된 커피숍의 면적은 69.4㎡에 보증금 1000만원, 월 임대료가 296만원이다. 1층의 다른 점포는 면적 54.4㎡에 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가 224만원이다. 평방미터당 월 임대료를 따져보면 각각 4만2000원, 4만1000원으로 차이가 없다.

또 학교 비용 운영 및 회계에 관하여 수익을 침해했다는 것과 관련 한진그룹은 "매년 130억원씩 재단 전입금을

지원하는 등 재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4000여억원을 지원했다"며 "그룹의 특 징계열사를 통해 학교 수익을 침해했다는 교육부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진그룹은 "교육부 징계 등은 과도한 조치라고 보고 있으며 향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편입학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고 학사취위 취소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학교 측은 "조원태 사장 편입학 취소도 이미 20년전 문제였다고 했던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는 행위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12일 오전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이 신규 항공기 도입을 축하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 성수기 대비 26번째 신규항공기 도입

이스타항공이 올해 성수기 시즌을 앞두고 두 번째 신규항공기를 도입한다.

이스타항공은 12일 오전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이스타항공 임직원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6번째 항공기 도입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입식은 기내에서 예배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은 한명씩 항공기 신규 도입을 축하하는 의미로 물 축포를 쏘며 안전운항을 기원하는 행

사를 진행했다.

이번 신규기재 도입으로 이스타항공은 이바라키, 블라디보스토크 등 신규 노선과 7, 8월 성수기 수요에 대비하게 된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총 18대(B737-700 1대, B737-800 15대, B737-900ER 2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국내 최초로 보잉의 차세대 주력 항공기인 B737-MAX 8 기종을 2대 도입 예정에 있다.

/정연우 기자

52시간 근무제·임금피크제... 몸푸는 금융노조, 2년만에 총파업?

33개 지부대표자 만장일치로 결정 25차례 교섭에도 노사 입장차 여전 노조, '노동이사제' 요구 거세질 듯



지난 2016년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모인 금융노조. /연합뉴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내달 7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파업도 찬반투표서 과반수로 가결된 만큼 이번에도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향후 노사 교섭에서도 최대 현안인 주52시간 근무제가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 여러 쟁점과 묶여 개별 합의는 힘들 전망이다. 또 금감원이 직접 '근로자 추천 이사제 검토'를 언급한 만큼 이에 대한 노사 측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11일 오후 긴급 지부대표자 회의를 열고 33개 지부대표자 만장일치로 총파업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노조와 사측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총 25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임금피크

제 등 주요 안건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노사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조정 중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절차의 수순을 밟고 있다.

업계에선 조만간 파업 찬반투표도 무난히 가결돼 2년만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노조지부 대표자회의에서 투쟁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지난 2016년 총파업을 결의했을 당시에도 95.7%의 찬성률로 가결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 관계자는 "파업 찬반투표를 선불리 예상할 수 없지만 대표자 회의에서 33개 지부대표자 만장일치를 통해 총파업투쟁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52시간 근무제 개별합의, "어려울 듯"

특히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노사가 특수직무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합의점 도

출에 난항을 겪다 조정이 무산됐다.

지난 4월 산별 노사 대표단 상견례 당시 노조는 사측에 52시간 근무제 외에도 총 5개 분야 53개 항목에 대한 안건을 제출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노조 관계자는 "52시간 근무제를 다른 쟁점과 분리해 개별적으로 사측과 교섭하는 것을 상의한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최대 안건인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정년연장, 노동이사제 등과 함께 다루려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년 연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희망퇴직, 청년고용 확대와 반하는 안건이고, 노동이사제 도입 등도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사안이라 내년도 입될 주52시간 근무제와는 별개로 다뤄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 요구 거세질 듯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 시 노동이사제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의 일원으로 발인 및 의결권을 가지고 의사결정 과정

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산하 투자·출연기관 13곳에 노동이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도입하고 있다.

현 정부가 노동이사제를 국정과제로 공언한 바 있고, 지난 9일 윤석현 금감원장이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근로자 추천 이사제 검토 계획을 밝혀 한풀 꺾었던 노조측의 노동이사제에 요구도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이사제 도입 조정회의에서 진행했던 안건에 속해있다"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비정상(노동이사제 미시행)에서 정상을 돌리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산업 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법리적인 기반이 없이 노동이사제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현행법과 저촉되고, 주주권한 침해까지 우려돼 노동이사제만을 두고 선별단합을 체결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법개정 이후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도전! GLOBAL 탐방 출정식.

“대학생 배낭여행 도전을 응원합니다”

KEB하나은행 '글로벌 탐방 출정식'

KEB하나은행은 지난 11일 서울 을지로 본점 대강당에서 대학생들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인 해외여행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기획된 해외여행지원 프로젝트 '도전! 글로벌(GLOBAL) 탐방'에 선정된 100명과 함께 출정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글로벌 탐방 이벤트는 KEB하나은행의 청년 희망 프로젝트 중 하나로 많은 비용으로 실패 해의 체험 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배낭여행 비용 지원을 통해 자기 계발과 도전정신을 고취시키고자 기획됐다.

장경훈 개인영업그룹 부행장은 격려사 통해 "20대 청년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자세는 뭐든지 실제로 해보는 실행력과 긍정적인 마인드"라면서 "이번 탐방을 통해서 글로벌 마인드와 꿈을 키우고 열정과 패기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20대 손님들의 니즈 충족을 위해 영하나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하여 폭넓은 혜택과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의 은행 영업점 업무를 지원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글로벌 청년인턴 프로그램 및 금융권 유일 그룹차원 대학생 대외활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들의 열정과 가능성을 키우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kmh@

우리은행 "여름 휴가철 '해변은행' 이용하세요"

우리은행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동점포 '해변은행'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변은행은 대전해수욕장과 망상해수욕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전해수욕장의 운영기간은 '제21회 보령 머드 축제' 기간인 이달 13~22일이며, 망상해수욕장은 이달 27일부터 8월 5일까지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며, 현금입출금과 이체 업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지리적 위치와 시간적 제약으로 영업점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이 있어 첨단 장비 갖춘 이동점포로 금융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며 "머드축제 등 전국 행사장, 여름철 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형태의 영업체널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車보험 사기피해자 7000명에 '30억' 환급

보험계약자 신청 없어도 환급 진행 과납보험료 조회시스템 통해 조회

자동차보험 사기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 30억원이 환급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보험회사가 2006년 7월~2018년 5월 기간 중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7000여명에게 약 30억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42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실적)

| 구분 | 일괄 환급 | 09.6월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1~5월 | 환급 누계 | 미환급 (18.5월) |
|----|-------|------------|-----|-------|-------|-------|---------|--------|-------------|
| 금액 | 490 | 1,642 | 117 | 206 | 172 | 242 | 80 | 2,949 | 33 |
| 인원 | 908 | 3,746 | 334 | 643 | 529 | 692 | 220 | 7,072 | 208 |
| 계약 | 2,971 | 11,073 | 975 | 1,922 | 1,566 | 2,139 | 710 | 21,356 | 375 |

급해주고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사기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 자동차보험료 미환급액은 3300만원으로 지난해 말 6800만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이번에는 금감원이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한 보험계약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안내했다.

소비자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 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의 환급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1@



노무법인 정론 임완호 대표노무사(왼쪽부터), KB국민은행 허인 행장,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한상춘 부사장, 김영익 교수, KB증권 윤경은 사장, 유영하 세무사.

KB금융그룹 전문가 5명 '외부자문위원' 위촉

KB금융그룹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KB증권 신사옥에서 'WM스타자문단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명을 외부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WM스타자문단 자문위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이코노미스트 김영익 교수, 국제금융 분야의 대가 한상춘 미래에셋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부사장, 국제형 승인 1호 미국세무사인 유영하 세무사, 노무법인 정론의 임완호 대표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KB금융의 내부 전문가 그룹인 KB W

M스타자문단과의 교류와 고객세미나 등을 통해 KB의 자산관리 역량을 최고로 유지할 계획이다.

WM스타자문단은 은행·증권·자산운용의 투자전략 및 포트폴리오 전문가, 은퇴설계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PB 중 스타급 전문가 3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고객맞춤형 투자솔루션 제안과 WM 현장 직원 연수, 고객세미나 제공 등 영업현장 지원을 통해 'KB형 자산관리 종합 솔루션 서비스 모델'을 구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NH농협금융지주 글로벌 경제전망 등 강연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 본사에서 금융지주 및 계열사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주요국가 경제전망 및 금융시장 점검'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연자로 나선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한광열, 김환 두 명의 애널리스트는 미-중 무역전쟁 본격화와 영향, 주요 국가별 통화 전망, 유가 등에 대한 현황을 설명했다.

또 국내외를 둘러싼 이슈로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부채와 중국기업 부채, 유럽은행 구조조정 이슈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농협금융은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원들의 리스크관리 및 심사 업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모임인 NH리스크전문가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농협금융 허충희 최고리스크책임자(CRO)는 "이번 전문가 강연을 통해 전 임직원이 글로벌 금융시장 및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이라 말했다. /안상미 기자



지구의 에너지를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시원한 지구를
돌려주세요 건강한 바다를
돌려주세요 지구에 힘이 되는 맹그로브 숲을
지구에게 받은 에너지를 다시 지구에게 돌려주기 위해,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에서
맹그로브 숲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CO₂ 흡수량이 열대우림의 5배로 지구온난화를 막아주는 맹그로브 숲,
이 숲은 SK이노베이션이 복원 중인 15,000평 규모의 실제 현장입니다



중권 다이제스트



KB증권 '비대면 투자미식회' 관심↑

KB증권이 지난 5월부터 진행한 '비대면 투자미식회'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비대면 투자미식회'는 고객들이 추천한 유명 면(麵) 맛집에서 면식과 투자설명회가 이뤄지는 이색적인 행사로, 대회 30명의 고객들을 추천하여 총 10회 진행되는 설명회에서 약 3000여명의 투자자가 참가 신청해 평균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첨된 고객은 면요리 시식 후 KB증권 내부 강사로부터 시장의 흐름을 읽는 법, 유망 투자 종목 등의 정보 공유 시간을 가진 후 현장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비대면투자미식회를 홍보하는 디지털 영상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 후 조회수 500만건을 돌파했다. /김문호 기자



IBK투자증권 투자기업 다자간 협약 체결

IBK투자증권은 경기도 가천대학교에서 경기남부권 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중소기업, 대기업, 대학간 '상호 협력을 위한 투자기업 간담회 및 다자간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다자간 협약식에는 대학교, 기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총 76개 기관이 참여해 청년 우수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특히 은수미 성남시장 등 지자체 및 5개 공공기관과 이길여 가천대 총장 등 7개 대학 관계자, 풀무원·GS리테일 등 3개 대기업과 IBK베스트채프인 기업인 이니스트 등 60개 중소기업 관계자까지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손영지 기자

유안타증권 원금손실 부담 줄인 ELS 3종

유안타증권 오는 17일까지 상품별로 각각 수익성 높이거나 원금손실 가능성을 낮춘 유안타 휴먼 ELS 3종을 총 15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

'휴먼 ELS 제4060호'는 조건 충족 시 상환되는 수익률을 높여 수익성을 강화했다. 만기 3년, 조기 상환 주기 6개월의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홍콩항셱중국기업(HSCEI), 유로스톡스50(EUROSTOXX 50),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S&P5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92%(6개월), 90%(12개월), 85%(18~24개월), 80%(30개월), 75%(36개월) 이상일 때 연 7.00%의 수익률로 조기 또는 만기 상환된다. 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기간 동안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21.00%(연 7.00%) 수익률로 만기 상환된다. /손영지 기자

지주사 수혜로 시너지 극대화... 27일 상장

IPO기자간담회 롯데정보통신

12년 만에 진행되는 롯데그룹 IPO 지주사와 시너지 효과 매력포인트 공모 428만6000주... 총 발행 30%

정보기술(IT) 솔루션 기업 롯데정보통신이 이달 말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다. 2006년 롯데쇼핑 이후 12년 만에 진행되는 롯데그룹 기업공개(IPO)다. 이번 상장 성공여부에 따라 남은 롯데지주 계열사 상장 속도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롯데정보통신은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날까지 수요예측을 마무리하고 공모가(2만8300원~3만3800원)를 확정짓은 뒤 오는 17, 18일 청약할 계획이다. 상장은 이달 27일로 예정돼 있다.

1996년 설립된 롯데정보통신은 지난 22년 간 롯데그룹의 IT를 총괄해 온 주요 계열사다. 롯데지주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서울 가산동에 본사와 통합정보센터, 대전과 경기 용인에 각각 재해복구센터와 글로벌 대외전문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롯데정보통신 IPO 기자간담회에서 마용득 대표이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롯데정보통신

주요 사업은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매출의 54% 비중을 차지하는 ITO 서비스, 38%를 차지하는 IT시스템 통합 운영 디지털전환(DT) 사업,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전개하는 글로벌 IT 서비스 등이다. 이들의 최근 3년(2015~2017년) 영업이익의 연 평균 성장률은 각각 3.3%, 6.1%, 22.7%다.

롯데정보통신의 투자 매력은 무엇보다 지주사와의 시너지다. 롯데그룹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사업 전 영역에

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IT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롯데지주 전체 매출에서 IT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0.69%에서 지난 해 0.97%로 증가했다. 올해는 그 투자 비중이 1%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이나 화학을 중심으로 스마트 팩토리 및 물류 시스템, 유통 계열사들의 판매 채널 통합 등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화가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마용득 롯데정보통신 대표는 "롯데그룹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대 수혜기업"이라며 "새로운 기술기반을 활용해 그룹 비즈니스로 대폭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롯데정보통신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롯데월드타워의 IT구축을 총괄하여 지능형빌딩시스템(IBS), 실내위치기반서비스, 융합보안, 스마트오피스 등을 선보였다. 교통 분야에서는 국내 스마트톨링 및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톨링은 국내 사업자 가운데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게 업계 평가다.

해외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증권거래 솔루션 운영에 대한 기술을 바탕으로 호찌민 증권거래소에 차세대 거래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유통과 결제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과 의료 정보 분야에서도 자체 기술의 현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 온라인 유통시장이 발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도 거점을 마련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정보통신 공모 주식수는 총 발행 주식의 30%인 428만6000주다. 이번 공모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은 현재 주력사업인 IT아웃소싱 기술 고도화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물류솔루션, 스마트팩토리 등 신기술 기반의 IT 서비스에 사용된다.

이번 롯데정보통신의 상장은 '롯데제과 → 롯데리아 → 대흥기획 → 롯데정보통신 → 롯데제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작업의 일환이다. 앞서 롯데지주는 지배구조 개선작업을 위해 비상장 자회사 IPO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만큼 앞으로 코리아세븐, 롯데시네마 등 잠재적 IPO 후보 기업들도 상장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마대표는 "롯데정보통신의 첫 상장은 롯데지주에 의미있는 지배구조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생각한다"며 "상장 후 주주환원 정책 등에서도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27일 코스피에 상장하는 롯데정보통신의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최고의 부자보다 최고의 기부자 되고파" 미래에셋,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 초점

대학생 장학사업·청소년 교육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나눔문화 앞장

"한국 최고의 부자가 되기보다 최고의 기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미래에셋이 고객과 사회로부터 얻은 것을 환원하는 길"이란 지론을 갖고 있다.

지난 2000년 3월 설립된 미래에셋 박현주재단은 글로벌 인재육성에 초점을 맞춰 대학생 장학사업과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을 핵심으로 운영한다. 계열사 간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설립 후 18년간 약 23만여명(2018년4월말기준)의 청소년을 지원해왔다. 또한 임직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밑바탕으로 봉사활동 및 정기기부를 통해 사내 나눔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

미래에셋은 다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건강한 꿈을 꿀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길을 마련해 주고 있다. 해외 교환장학생 4517명, 국내장학생 3292명, 글로벌 투자전문가 장학생 122명 등 지금까지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은 7900여명에 달한다.

특히 '해외 교환장학생'은 모교에서 해외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미래에셋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교환학생 장학금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해외 유수의 대학에서 학문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매년 500여 명에게 학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진화된 해



지난 2015년 제14회 중국 상하이에서 글로벌 문화체험단의 모습(왼쪽)과 2016년 미래에셋 장학생들이 벽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외를 방문하여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글로벌리더대상정' 프로그램과 '글로벌 문화체험단'을 통해 금융지구 견학, 글로벌 기업 탐방, 역사 유적지 방문 등 세계 경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사회 조성

미래에셋은 경제 양극화 현상과 가정의 해체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가족희망캠프, 청소년 비전캠프, 문화체험활동비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희망드림 도서지원'은 아이들이 도서관이나 시설에 기증된 도서를 공유하는 것이 아닌 자기만의 책을 소유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연령과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도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저소득층 아이들이 대상이며 지난 2013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7만권(7만 1772권)이 넘는 도서를 지원했다.

'청소년 금융진로교육'은 투자전문그룹으로서 미래에셋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금융교육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체험형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경제관념을 심어



주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유아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대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해 교육한다.

◆1%희망나눔 캠페인...따뜻한자본주의

미래에셋은 사회공헌사업 외에도 나눔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은 창립 다음해인 98년 미래에셋육영재단을 만들고, 2000년 75억원의 사재를 출현해 미래에셋박현주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사회공헌 활동의 실천을 함께 이루고자 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 쓰겠다는 약속의 실천으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8년간 약 216억원에 이르는 배당금 전액을 기부해오고 있다.

미래에셋 임원들은 매달 급여의 1%를 기부하는 '임원 1% 희망나눔' 캠페인에 참여하여 나눔문화를 실천하고 있으며, 직원들 역시 기부운동 '사랑합니다'를 통해 정기후원에 동참하고 있다. 더불어 매년 개인의 기부액만큼 회사에서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제도를 통해 기부금을 2배의 재원으로 조성하여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kmh@

한화건설 '수원 권선 꿈에그린' 계약 92% 입주 순항

한화건설이 건설한 대규모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수원 권선 꿈에그린'의 계약률이 최근 92%를 돌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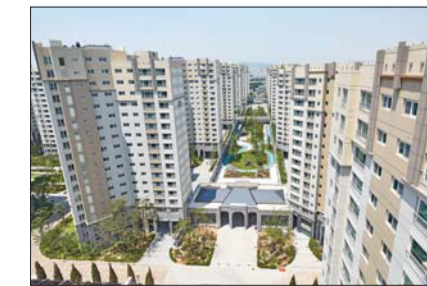
이 단지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99에 32개동 지하 2층, 지상 15~20층, 전용면적 59~84㎡, 2400가구로 조성됐다. 지난 3월 입주를 개시해 일부 계약 해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계약을 진행 중이다.

'수원 권선 꿈에그린'은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지 중앙에 7500㎡에 이르는 초대형 선큰광장을 설치하고 조깅트랙, 야외 카페,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학습놀이존, 플레이존, 학습체육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했다. 지상은 주차장을 없애 자연 친화형 단지로 만들었다.

이런 시설들은 보육 및 교육 특화 서비스와 연계되어 운영된다.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2곳(시립 꿈에어린이집, 시립 그린어린이집)이 조만간 입소를 시작한다. 아울러 ▲음악놀이, 미술놀이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습놀이존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는 플레이존 ▲운동, 스포츠 등 신체발달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학습체육시설 ▲독서실 및 도서관 등을 조성해 단지 내에서 각종 교육을 해결할 수 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韓·싱가포르, 우호관계 격상... 4차혁명시대 함께 준비”

文 대통령-리셴룽 총리 회담

에너지·스타트업 교류·협력 강화 교역 확대·이중과세 방지 협정도

한국과 싱가포르 정상이 양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스마트제조 등 첨단산업, 핀테크, 바이오·의료 등 신산업 분야에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스마트 그리드,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와 중소기업·스타트업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가 중점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협력하는 등 한·아세안 간 상생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리셴룽 총리와 이스타나 대통령궁에서 회담하고 양국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 방안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이같이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파트너인 싱가포르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호혜적·포괄적·미래지향적으로 한 차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대통령궁(이스타나)에서 리셴룽 총리와 정상 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대통령궁에서 리셴룽 총리와 정상 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격상시키고,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와 한·아세안 관계 증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리 총리는 신남방정책 기초 하에 향후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의 우수한 기술력·자본력을 잘 접목해 활용한다면 첨단제조·인공지능·빅데이터·핀테크·바이오·의료 등 첨단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양국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

해 현재 약 200억 달러 수준의 교역 규모를 대폭 늘리고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또 그동안 추진해온 상생번영의 경제협력의 평가하면서 앞으로 싱가포르의 교통·인프라·에너지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싱가포르는 중동을 제외한 한국의 제1위 해외 건설시장이자 아세안 내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국이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간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며 “양국 기업이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제3국에 공동 진출

할 수 있게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적 교류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토대인 정부와 국민 간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우선 정상 차원을 포함해 고위급 인사 교류부터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또 “인재 양성을 위한 교류도 확대할 것”이라며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과 우수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인재 교류를 넓히고, 아세안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한·싱가포르 공동연수 프로그램도 더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두 정상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에서의 긍정적인 상황 변화에 대해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역사적인 6·12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여정에 공헌한 것을 평가하고 사의를 표했다.

이에 리 총리는 긍정적인 상황 변화를 끌어낸 한국 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런 상황 변화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회담이 끝난 뒤 두 정상은 양국 간의 4차 산업혁명 기술협력·환경협력·중소기업 혁신 및 스타트업 협력 등 3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담은 싱가포르의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리 총리와 양 국민 간 우호·협력 증진, 상생번영의 경제협력, 한반도 문제 등 역내 평화·안보 증진 등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와 한·아세안 협력 증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의 이행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프랜차이즈, 아세안 진출에 ‘물심양면’ 지원

홍중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인도·싱가포르에 ‘스타트업 센터’ “해외 진출로 골목상권 침투 해소”

홍중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초기 창업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인도와 싱가포르에 ‘스타트업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의 메카 역할을 하고 있는 ‘구글 아카데미’의 한국판을 이들 나라에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내에만 머물기 쉬운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등 아세안지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방문에 동행하고 있는 홍중학 장관은 지난 11일 싱가포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세계로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센터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공감대를 정부내에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인도와 싱가포르에 센터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문 대통령의 직전 3박4일간의 인도 순방에도 공식수행원으로 동행한 바 있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센터가 만들어지면 한국의 창업자와 이들 나라의 창업자가 같은 자리에서 네트워킹하며 소통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바로 이것이 중기부가 추구하는 새로운 교역 모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각 나라별로 KOTRA 사무소를 비롯해 비즈니스인큐베이터(BI)가 설치돼 있지만 이를 좀더 확대해 스타트업들의 글로벌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세계화 전략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와 싱가포르 국빈방문을 수행 중인 홍중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싱가포르 상그릴라 라사 센토사 리조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도 방문 성과와 싱가포르에서의 전망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 프랜차이즈들의 해외 진출도 적극 돕기로 했다.

홍 장관은 “국내 프랜차이즈는 분명히 혁신성을 갖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의 프랜차이즈 업계가 동남아, 아세안 국가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홍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세인트레지스 호텔에서 현지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열린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상담회’ 현장에도 방문, 기업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가졌다.

상담회에는 바보스, 이번지강통집, 보스턴오뎅, 청년다방, 떡담, 국수나무, 치킨풍, 커피베이 등 국내 프랜차이즈 10곳이 참석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싱가포르에서 외식 브랜드 상위 10위 중 6개를 맥도날드, KFC, 서브웨이, 스타벅스 등 미국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다. 10위권에 한국 브랜드는 없다.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25곳이 현지에서 진출해 7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

다. 이 가운데 더본코리아, 탐앤탐스, 파리크라상을 제외한 22곳이 중소기업 브랜드다.

홍 장관은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국내에서 골목상권에 자주 침투해 문제가 되는데, 그보다는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한다”고 전했다.

홍 장관은 또 “그동안 싱가포르가 주로 한국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제 한국이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에 투자하는 펀드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공동펀드 조성 등 MOU(양해각서)를 싱가포르 측과 체결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국내에서 현재 이해당사자간 논쟁이 한창인 최저임금에 대해선 “소득주도성장 정책 취지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서민의 지갑을 ‘뽕뽕’하게 해서 돈을 들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지금 속도가 맞지 않아서 돈이 돌기 전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됐고, 원래 생각하던 것보다 부작용이 먼저 드러나고 있다”면서도 “정부의 정책은 계속 서민경제에 돈이 들게하는 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 김병준 등 5명 압축

자유한국당은 12일 김성원·전희경 의원과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박찬종 변호사,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 등 5명을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압축했다.

한국당 비대위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물론 국민을 상대로 추천받은 결과 150여분의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선정할 수 있었다”며 “실무진이 세부 검토를 하고 비대위 준비위의 심층적인 난상토론을 거쳐 후보자를 압축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다섯 분 모두 발표해도 좋다는 말을 했다”며 “어느 한 분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다른 분은 비대위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동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준 교수는 노무현정부 대통령 정책실장 출신으로, 노무현정부에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도 역임했다. 박근혜정부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받았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김성원 의원은 경기 동두천·연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초선 의원으로, 현재 한

국당 지역구 의원 가운데 최연소(45)다. 초선의원 모임 간사를 지냈고, 이번엔 비대위 구성 준비위원으로 활동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5선 의원을 지낸 원로 정치인으로, 신민당 공동대표·한나라당 상임고문·민주국민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은 2017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과 조직강화특별위원장을 지냈고, 지난해 말에는 당무감사위원장으로 당협 구조조정을 주도했다. 또 6·13 지방선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거에 참여하기도 했다.

전희경 의원은 초선 비례대표로, 지난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 대변인과, 한국당 공동대변인을 역임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보수진영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를 거쳐 비대위원장의 자격 등에 관해 토론을 하고, 이번 주말 정도에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오는 17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장을 추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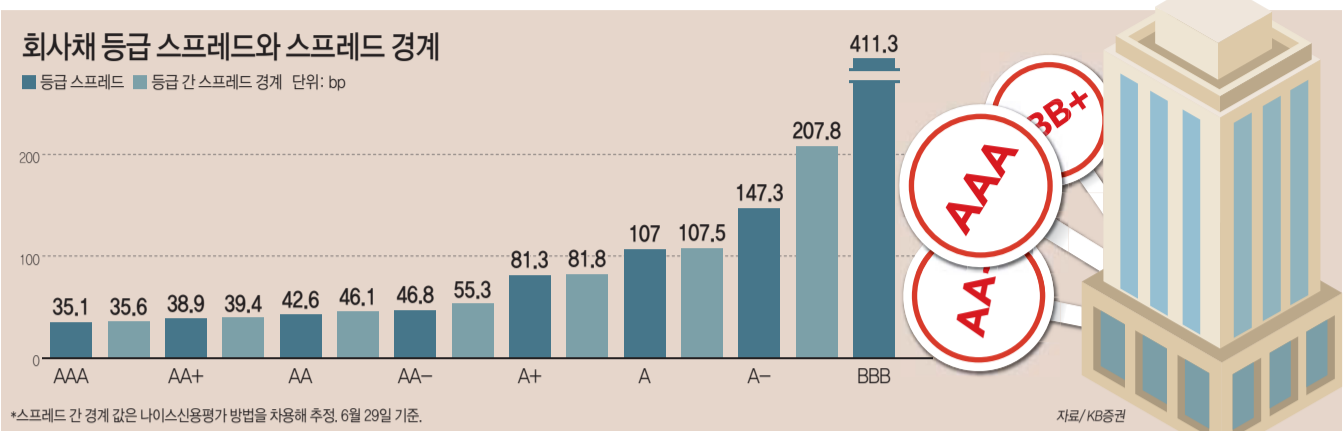
자유한국당 안상수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최종 후보자를 발표하기 위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A’ ‘AA’ 회사채 등급 고평가... 거품 주의보

일부기업 신용기업 과대평가 지적
높은 캐리매력에 가격인플레 우려
135곳 자체신용도 최종보다 낮아

#. 지난 2011년 2월 효성그룹 계열사인 진흥기업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채권단에 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시공능력 43위의 중견 건설업체였던 진흥기업은 만기도래 어음 190억원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냈고 채권단과 효성의 지원으로 간신히 최종 부도를 면했다. 당시 효성그룹의 지원 가능성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한 때 금융시장을 뒤흔든 대우조선해양, STX조선 등이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부여하는 기업 회사채 중 ‘A’와 ‘AA’ 등급에서 ‘거품 현상(가격 인플레)’이 여전하다. 일부 기업에서 신용등급 과대평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KB증권에 따르면 ‘A’ 등급 기업 중



유효신용등급과내재신용등급이 일치하는 비중은 45.2%였다. 저평가된 비중은 19.4%, 고평가된 비중은 35.5%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A-’ 등급은 대부분 적정 수준에 가격이 형성돼 있었고, ‘A+’와 ‘A’ 등급은 다소 고평가돼 있었다. 고평가된 비중은 ‘AA’ 등급 대비 크지 않았으나, ‘AA’ 등급 이상보다 ‘A’ 등급 내 등급 간 스프레드 격차가 훨씬 컸다. 특히 ‘A+’ 등급에서 고평가된 기업이 50%에 가까운 점을 감안한다면 높은 캐리매력에 따른 ‘A’ 등급

사채의 가격인플레 가능성이 있다. ‘AA’ 등급은 유효신용등급과 내재신용등급이 일치하는 비중이 18.6%에 불과했다. 저평가된 비중은 33.0%, 고평가된 비중은 48.4%였다. ‘AA’ 등급이 유효신용등급과 내재신용등급 간의 차이가 최대 2노치로 크고 저평가부터 고평가 구간까지 고르게 분포돼 있어 선별적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AA+’와 ‘AA-’ 등급은 과반 이상이 고평가 구간에 치우쳐 있어 가

격인플레가 발생하고 있다. KB증권 전혜현 연구원은 “‘AA’ 등급은 고평가 비중이 높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장가격 조정이 신용도 조정에 선제적으로 형성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등급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면서 “신용등급 또는 채권 가격 재평가 시 스프레드 변동성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AA’ 등급 기업의 유효신용등급과 내재신용등급이 일치하는 비중은 75%로

높았다. 고평가 (내재신용등급이 유효신용등급보다 우수)된 기업은 없었다. 일부 등급 대비 3노치까지 저평가(내재신용등급이 유효신용등급보다 열위)된 경우도 있었다. 상반기 말 기준 등급 간 스프레드 경계를 살펴보면 ‘AA’와 ‘AA-’는 상대적으로 열위한 등급인 ‘AA-’에 가까웠다. ‘AA-’와 ‘A+’는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인 ‘AA-’에 가까웠다. 최상위 신용등급인 ‘AAA’와 ‘AA+’, ‘AA+’와 ‘AA’,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A+’와 ‘A’, ‘A’와 ‘A-’ 간 스프레드 경계는 상위 등급 스프레드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체신용도를 공시한 135개사(금융사 포함) 중 72개사(53.3%)는 자체신용도가 최종 신용등급보다 낮았다. 자체신용도는 정부나 모기업, 계열사 등의 지원 가능성을 제외한 개별 기업의 자생력(독자적 재무상환능력)을 말한다.

올해 3.0% 성장 물 건너갔나 기준금리 8·10월 인상 ‘전망’

경제성장률 2.9%로 하향 조정
세계경제 호조에 양호흐름 지속
금통위원 7명 중 1명 ‘인상 의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브리핑실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듣고 있다. /연합

한국은행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9%로 0.1%포인트 하향조정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종전 2.9%에서 2.8%로 낮췄다. 특히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1.50%로 동결됐지만,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오면서 빠르면 8월 경 기준금리 인상소식이 들릴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무역분쟁 방향성 가능하기 어렵다”... 성장률 또 낮추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기 흐름을 다시 점검해본 결과 올해 경제성장률은 4월 전망치(연 3.0%)보다 소폭 낮은 2.9%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불확실성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진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중간 무역전쟁을 대표적인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이 총재는 “무역분쟁이 처음에는 그렇게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본게 사실인데 날로 확대되고 있고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미국의 중국에 대한 2차 관세 부과 조치가) 만약 시행에 옮겨진다면 우리 수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경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낮추긴 했지만 상반기 실적도 반영하고 하방 리스크도 고려한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금통위에서 의결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앞으로 투자는 둔화되었지만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성장전망 경로상의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대내외 제반여건의 변화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운용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글로벌 무역전쟁의 전개방향과 함께 미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소비자들은 4사분기에는 1% 후반으로 높아져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통화정책완화 정도의 추가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지표와 관련, “인구구조의 변화, 자본집약산업 중심의 성장세 지속,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 속도를 보면 30만명 내외의 취업자 수 증가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기준금리 8월 인상(?)
8월이나 10월 금리인상 기대감도 컸다. 한은 이주열 총재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 결정했지만 금통위원 7명 중 이일형 위원이 0.25%포인트 인상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금통위에서 인상 소수의견이 나온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이에대해 이 총재는 “금통위의 공식적인 인상 시그널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금리인상 시그널로 받아들인다. 실제 지난해 10월에도 이일형 위원

이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낸 후 금통위는 곧이어 11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했다. 메리츠증권증권 연구원은 “8월 금통위 전까지 미중 무역전쟁 우려가 완화되고 ECB가 유럽 경기개선을 기반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의지를 높일 경우 금리인상 단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로 갈수록 투자지표 둔화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지속될 위험이 금리인상은 쉽지 않을 공산이 크다”면서 “물가가 목표 수준까지 올라온다고 해도 경기가 받쳐주지 않으면 인상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머릿수 맞춰 사업비 산정” SW산업 발전에 걸림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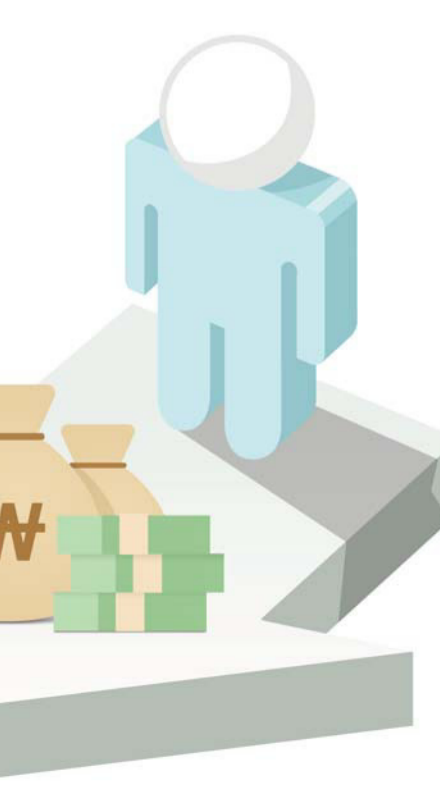
한경연 ‘SW산업 발전 정책제언’
헤드카운팅, 산업 발전저해 지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SW)의 발전을 위해 ‘헤드카운팅’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합리한 관행인 헤드카운팅 문제가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헤드카운팅이란 프로젝트에 실제로 투입되는 인원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계산하고 인력투입 현황을 확인해 계획 대비 인력이 덜 투입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2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3년 대비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시장의 증가율은 7.5%로 글로벌시장 증가율인 17.1%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밝혔다. 시장 규모도 16위에 그치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소프트웨어시장의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4% 이상으로 우리나라(2.2%)보다 높았다. 오는 2020년까지 국내 시장은 2%대의 저성장이 예측된다고 지적한다. 우리와 경쟁 관계인 중국, 인도, 멕시코, 남아공 등 신흥국은 높은 속도로 소프트웨어산업이 커지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연평균 성장률은 8.6~11.6%로 우리보다 4배 이상 높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소

프트웨어산업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IT서비스 시장, 특히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부문이 정체되면서 전체 소프트웨어산업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헤드카운팅 방식의 적용으로 불합리한 사업 및 근로 환경이 조성되어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헤드카운팅 방식 하에서 우수한 인력을 투입하거나 투입인력을 절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기업의 노력은 불필요하고 발주자의 지속적인 기술자 관리는 근로조건의 저하와 잦은 인력이탈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프트웨어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산업이며 고용유발 효과는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제조업의 2배에 달해실업문

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어 활성화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근본적인 부분부터 개선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중인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혁신방안과 헤드카운팅 문제 개선이 민간 소프트웨어사업 부분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상 규제를 완화하고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제도가 빠르게 발전하는 ICT 분야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지체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미래지향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alton
DO THE BEST, BE THE STYLE

www.altonsports.com

고객이 가장 많이 선택한
전기자전거
Ealton



E-ALTON INNOZEN

자전거 전용 도로 진입 가능 (PAS 전용모델에 한함)

- 삼성 SDI 리튬 이온 배터리 3-4 시간 완충
- 완충 시 60km 주행 가능
- 전국 A/S망 구축



쌍용차 “스마트폰보다 더 똑똑한 車 만들 것”

쌍용자동차 미래차 포럼

‘커넥티드 카’ 내년 출시 예정
자율주행차, 안전성 최우선으로
카 셰어링·개인 서비스 개발중



자율주행차를 시연 중인 쌍용자동차 티볼리 에어. /쌍용자동차

자동차와 정보기술(IT)이 만났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11일 미래자동차 신기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며 자동차와 IT기술이 결합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커넥티드 카’와 자율주행 차량기술을 소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윤교석 쌍용자동차 팀장은 “지금의 커넥티드 카는 통신내장형으로 자체 통신을 활용해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다”며 “독립적으로 주변 사물과 인터넷 연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쌍용자동차는 커넥티드 카의 전용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앱 업데이트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며 “주차장, 주유소 등 상세정보를 관리해 운전자에게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차량 내 와이파이 핫스팟을 제공할 예정이며 AI 음성인식 제어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개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2016년 커넥티드 카 TF가 출범했으며 2017년 정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다. 오는 2019년 출시를

목표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다. 그는 커넥티드 카의 기술개발 방향에 대해 “음성인식과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까지 제공하는 커넥티드 카가 단기 내 보편화될 예정”이라며 “인공지능을 통한 개인 서비스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로 나아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자동차가 제시한 커넥티드카의 10대 기술 중에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아이오티, 음성인식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열골표정과 안면근육 등의 움직임을 통해 생체인식으로 차량을 통제하는 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개발의 목표와 성능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김창섭 수석연구원은 “자율주행 개발의 가장 큰 목적은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함”이라며 “교통사고 원인 중 90%는 운전자 과실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개발되면 운전자의 편의를 증대하고 교통 효율을 증대할 수 있으며 교통약자들의 이동수단이 확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자율주행차는 기술력에 따라 레벨0부터 5가지 구분되고 있다. 레벨3부터 제한적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언제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석을 떠날 수 없으며 완전한 자율주행은 레벨5부터 가능하다.

그는 “자율주행차레벨5의 경우 자동차

가 알아서 목적지로 이동시켜 주기 때문에 운전석과 운전대가 필요없다”며 “그러나 완전한 자율주행에 이르기 위해서는 20~30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기술에는 자율주행 센서, HD급 전자지도, V2X, 주행제어 및 판단 시스템, 기능안전 시스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자동주행 시스템 등이 있다.

현재 쌍용자동차는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무전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자율주행 기반의 카 셰어링 서비스 등의 개발을 계획 중이다.

차 앞에 위험물 있으면 차선을 바꿔 피해갈 수 있는 전방추돌경보, 자동 긴급제동,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김 연구원은 “쌍용자동차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며 “사명감을 갖고 안전한 차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위라벨 바람에 ‘저녁 있는 아파트’ 인기

문화·복합단지, 숲세권 아파트 주목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가운데, 아파트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 있다. 직장인들의 저녁·주말 시간이 확보되자 출·퇴근이 편한 곳보다는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단지로 눈길을 돌리는 추세다. 특히 자연환경이 쾌적하고 문화시설이 조성된 단지가 인기다.

1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1순위 마감 단지를 집계한 결과 전국에서 분양한 194개 단지 중 1순위 마감에 성공한 단지는 42.8%(83개)다. 그중 청약경쟁률 최상위를 기록한 단지들은 주변에 녹지가 풍부하거나 문화 인프라가 잘 조성됐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대구6편한세상 남산’으로 경쟁률이 346.51대 1이다. 이 단지는 달산공원과 두류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하고 문화예술회관도 가깝다.

지역별로 봤을 때 경기도는 그린프리미엄을 갖춘 동탄2신도시 ‘동탄역 에미지 3차(106.81대 1)’가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서울은 도심에 위치하면서도 한강공원 등 쾌적한 환경이 조성된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79.9대 1)’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엔 교통 환경이 좋아지거나 개발호재를 갖춰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까지 높은 주거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었다”고 말했다.

이에 녹지가 풍부하거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단지들이 줄줄

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7월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54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중동’을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 아파트 전용 84~141㎡ 999가구, 오피스텔 단일면적 전용 84㎡ 49실, 상업시설 ‘힐스 에비뉴’로 구성돼 있다. 단지 인근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대형 편의시설이 가깝고, 약 12만㎡ 규모의 부천중앙공원이 바로 앞에 있다.

유림E&C도 이달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업무복합 3블록에서 주거시설과 업무시설,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단지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4개 동 규모에 전용면적 71~96㎡ 아파트 312가구와 전용면적 22~33㎡ 규모의 오피스텔 600실 등 912가구다.

현대건설도 같은 달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468-19번지 일대에서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36층 규모며, 아파트 3개동에 전용면적 78~114㎡ 256가구, 오피스텔 1개동에 전용면적 24~27㎡ 138실로 조성된다. 인근에 설악산, 속초해수욕장, 청초호 호수공원 등이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7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661-2번지 일대에 ‘청주 가경 아이파크 3단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84~144㎡ 983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동쪽에 흥골천이 흐르고 서쪽에 석남천 수변공원이 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위라벨 환경 갖춘 7월 신규 분양단지>

| 위치 | 단지명 | 총가구수 (일반분양) | 전용면적 (㎡) | 위라벨 환경 | 건설사 |
|--------------|---------------|-------------|----------|-----------------------|-----------|
| 경기 부천시 중동 | 힐스테이트 중동 | 999(아) | 84~141 | 부천중앙공원 | 현대엔지니어링 |
| | | 49(오) | 84 | 문화예술회관 | |
|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 312(아) | 71~96 | 동탄여울공원 | 유림E&C |
| | | 600(오) | 24~27 | | |
| 경기 용인시 | 신동백 두산위브 더제니스 | 1,187 | 69~84 | 동백호수공원 석성산, 에버랜드 | 두산건설 |
| 강원 속초시 중앙동 |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 | 256(아) | 78~114 | 설악산, 호수공원 | 현대건설 |
| | | 138(오) | 24~27 | 속초해수욕장 | |
| 충북 청주시 | 청주 가경 아이파크 | 983 | 84~144 | 흥골천, 석남천 수변공원, 감나무실공원 | HDC현대산업개발 |

상기 분양 개요는 건설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자료=리얼투데이



12일 안드로이드 오토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안드로이드 오토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구글

현대차+구글+카카오내비 ‘스마트 드라이빙’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첫 선
내비·음악감상·전화, 문자 전송
한국어 음성명령으로 조작 가능

구글이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구매할 필요 없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자동차로 확장해 주행 중에도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오토’ 서비스를 12일 국내에 출시했다. 안드로이드 오토를 미국에서 출시한 지 3년 만으로 영어 외의 언어로는 한국어가 처음이다.

1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비트360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로렌스 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프로젝트 매니저는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운전 그 자체인데 요즘 운전자들은 음악을 듣고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안전하게 차를 이용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를 고안했다”고 말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2015년 현대자동차에 처음 적용됐으며 출시 이후 현재까지 50개가 넘는 업체의 500개가 넘는 차량 모델에 지원되고 있다.

안드로이드 오토의 기능은 내비게이션, 음악 감상, 커뮤니케이션(전화, 메



12일 안드로이드 오토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로렌스 김(Lawrence Kim)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리드 프로젝트 매니저가 안드로이드 오토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글

시지) 등 크게 3가지다. 안드로이드 오토의 내비게이션 기능에는 ‘카카오내비’ 앱이 기본 앱으로 탑재돼 있다. 또한 이 기능들은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 음성 명령으로 조작할 수 있다.

사용자가 “오케이 구글. 인천 공항 가는 길 알려줘”라고 말하자 안드로이드 오토가 길 안내를 시작했다. 이외에도 멜론, 벅스, 지니뮤직, 팟티 등 국내 인기 음악과 팟캐스트 앱을 사용할 수 있어 주행 중에도 언제든 원하는 노래 제목을 명령해 편하게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다.

또 “엄마한테 지금 출발한다고 문자 보내줘”라고 말하면 메시지를 전송해

주며 답장을 읽어주기도 한다. 날씨와 백화점 영업시간과 같은 정보도 제공한다. 이날 안드로이드 오토의 시연을 진행한 존 최 안드로이드 오토 엔지니어링 매니저는 “구글어시스턴트 기능은 앞으로도 계속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드로이드 오토의 이용법은 간단하다. 안드로이드 오토 앱을 다운로드 후 환되는 자동차에 USB케이블을 꽂으면 자동으로 설치된다.

이날 참석한 현대·기아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 개발실장 추교용 이사는 “편리하고 유용한 인포테인먼트 기술을 넘어 고객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안드로이드 오토의 파트너사다.

윤주선 카카오모빌리티 최고기술책임(CTO)은 “주행 중 안전성과 편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집중 구현함으로써 안드로이드 오토와의 최적화를 완벽하게 마쳤다”며 “이 순간에도 카카오내비는 유저 트래픽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안드로이드 오토가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세계 기술규제 높아진다... '보호무역 칼바람'

국표원 '무역기술장벽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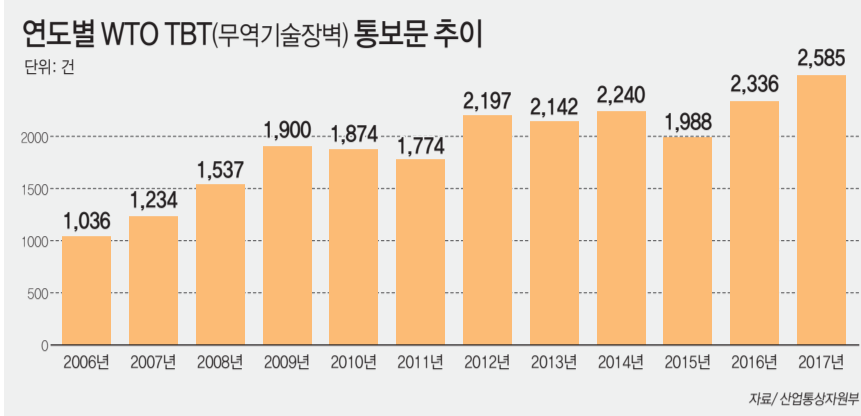
세계기술규제 도입건수 역대최고 아프리카 등 개도국 규제 급상승 4차산업 등 신산업 규제도 강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1년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 분야와 환경보호 관련 규제들이 강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지난해 전세계 기술규제 동향과 특징, 해외 규제 대응 사례 등을 담은 '2017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1년간 해외 기술규제의 주요 특징인 ▲세계 기술규제 공식 도입건수 최고치 기록 및 개도국 규제 확대 ▲숨은 기술규제 급격한 증가 ▲4차 산업 등 새로운 분야 규제 강화 추세 등을 분석·정리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이 작년 2585건(82개국)으로 공식적인 세계 기술규제 도입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갱



신했다.

TBT 통보문 발행추이는 2005년 897건에서 2015년 1987건, 2016년 2332건, 그리고 2017년 2585건 등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동남아·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규제가 크게 증가해 신규 기술규제 1793건 중 84%를 차지했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전반적인 규제체제 정비, 투명성 확대와 병행해 국제기준과 다른 자국중심 규제를 다수 도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는 식품·의약품(948건, 36.7%), 화학세라믹(396, 15.3%), 전기전자(278, 10.8%) 분야 규제가 많았고,

규제목적은 건강 및 안전(1233건), 품질보장(448건), 환경보호(322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WTO 회원국이 외국의 기술규제가 자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도 178건(34개국)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작년에 새로 제기된 STC 중 WTO에 통보하지 않고 시행한 '숨은규제'의 비중이 59%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외국이 비공개로 도입하는 기술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국표원은 지적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보·사이버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9건에 불과했던 정보디지털 분야 STC 제기가 2017년에는 21건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국가보안 등을 이유로 사이버보안 규제를 다수 도입해 4차산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미국 등도 개인정보 분야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를 주요 수출기업, 유관단체 등에 배포해 활용도 높일 계획"이라며 "이달 중 관계부처, 업종단체 등과 함께 TBT 대응 민관협의회를 열고 날로 확대되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표원은 최근 기업 및 유관단체 등과 함께 외국이 공개하지 않고 시행하는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현장진설팅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정책브리핑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센터에서 진행된 '비온드 팜' 1호점 개장식 모습. /농식품부

농식품부 '비온드 팜' 1호점 개장

앞으로 국산 농식품을 전용 판매관에 만나볼 수 있게 됐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센터에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판매관 '비온드 팜' 1호점을 개장했다.

비온드팜 1호점은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제품의 판로 확산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민간주도형 전문판매관으로 시범 운영된다. 운영업체는 올해 5월 민간운영사업자 공모로 선정됐으며 6차산업 제품 BI(Beyond Farm)를 이용한 최초의 브랜드 통일 매장이다.

앞으로 전국 시·도에 설치된 6차산업 안테나숍(전국 28개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 소비자 반응도가 우수한 제품을 비온드팜 매장에서 판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도권 소비자 대상 판로확대의 선도 매장으로 역할하게 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지역 특화버섯 30종 개발... 지역경제 살린다

농진청, 표고·목이 등 10개 품종 2025년 국산 점유율 70% 목표

농진청은 지역별 특화 버섯 품종 30개를 개발했다.

12일 농진청에 따르면 지역별 특화버섯 30종은 표고, 느타리, 잎새버섯, 산느타리, 갈색팽이, 동충하초, 양송이, 느티만가닥버섯, 버들송이, 목이 등 10개 품종을 대상으로 개발됐다.

대표적으로 갈색팽이 '여름향 1호'와 '2호'는 백색팽이가 점유한 팽이시장에 황금팽이라는 차별성이 있는 품종이다. 특히 갈색양송이는 백색에 비해 아삭아삭한 식감이 뛰어나고 재배기간이 짧고 저



갈색팽이 '여름향 1호'. /농진청

장성이 좋아 앞으로 재배가 늘어날 전망이다.

식미가 풍부하나 소비자 인지도가 낮은 갈색양송이 '단석1호'와 '호감' 품종은 최근 경남 지역에 첫 출하되면서 전국

적인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사람의 귀를 닮은 목이 '용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배변활동 원활'의 기능성을 인정했으며, 겨울에는 벌레이고 여름에는 풀로 불리는 약용버섯 동충하초 '도원홍초' 품종은 지역 농가에 우선 보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수출용 버섯인 백색팽이 '백승'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호주 등에 시범수출을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잎새버섯과 느티만가닥버섯은 일본으로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

농진청은 소비자 선호도에 맞는 버섯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골든시드프로젝트(GSP)를 통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

비하는 느타리와 세계인이 가장 많이 먹는 양송이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중앙 및 지자체에서 품종개발과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해 2025년까지 국산 품종 점유율을 70%로 끌어 올려 국내 생산 기반 안정과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특화버섯의 본격적인 보급으로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인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인삼특작부장은 "이번에 개발한 지역특화버섯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우수한 버섯 품종 개발에 매진해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 버섯을 대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특수활동비 상납... 문고리 3인방 '유죄'

이재만 징역 1년6월·안봉근 2년6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아 챙긴 점이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두 사람은 이날 다시 수감됐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3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법종 기자 joker@

철강산업 현장서 노동시간 단축 호소

이인호 산업부차관, 동국제강 방문

정부가 철강산업 현장을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2일 동국제강 인천공장을 방문해 이달부터 시행 중인 노동시간 단축 관련 동향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주 52시간 시대의 개막이 우리 국민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도약도 촉진할 것"이라며 "철강 업계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광진구 동국제강 인천공장장은 동국제강의 경우 2007년부터 생산라인 4조 3교대제를 시행했으며 지속적인 근무문화개선 노력을 통해 주 52시간 이내 근무시스템이 이미 정착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사내협력사들이 노동시간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2일 오전 동국제강 인천공장을 방문해 박진수 공장장, 박상규 노조위원장, 사내협력사 대표 등과 주요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단축에 우려를 표하던 점을 감안,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당사의 '동반성장 지원금'을 활용해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국제강과 사내협력사 관계자들은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가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를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

KICOX 시민혁신단 발족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2일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추진을 위해 'KICOX 시민참여혁신단'을 발족했다.

시민참여혁신단은 산단공의 혁신방향, 추진과제 발굴, 혁신과정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개선 등 혁신추진 전반에 걸쳐 활동하게 된다.

특히, 공공기관 혁신 3대 기본방향인 ▲공공성 강화 ▲경제패러다임 전환 ▲국민 신뢰 회복 등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민참여혁신단은 시민단체, 학계, 사회적 기업, 협력업체, 학생 등 사회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8명의 외부위원과 5명의 내부위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황규연 공단 이사장이 직접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국토부

타워크레인 전수조사 허위등록 267대 퇴출

제작연도를 허위등록한 타워크레인 267대가 등록 말소됐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타워크레인 6162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허위등록 의심장비 366대를 적발하고 이 중 267대를 퇴출했다. 또 19대는 단순 착오에 의한 연식 정정, 60대는 소유자 소명 등을 통해 말소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 78대의 타워크레인은 제작사 부도 등으로 제작연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상태다. 이들에 대해서 정기검사 시 현장에서 장비 상태, 등록명판, 사용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해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유통기한 지났는데 “오늘 만들었어요”

가정간편식 불법판매 99곳 적발

경기도 HMR 제조업체 집중단속

프랜차이즈·브랜드 본사 포함
94곳 형사입건·5곳 행정처분



경기도 특사경 가정간편식 제조 가공업체 단속장면. /경기도

경기도는 가정간편식(HMR)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당일 조리한 것처럼 제조일자 속이거나, 곰팡이가 핀 오래된 식자재를 조리용으로 보관해 온 불법 제조·판매업체들을 적발했다. HMR은 집에서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완전 조리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말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4일부터 20일까지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330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 제조·판매업체 99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들 적발 업소 가운데는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5개 브랜드가맹점 19곳과 본사 2곳이 포함돼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미신고 영업 13개소 ▲제조일자(유통기한)허위표시 6개소 ▲기준규격(보존·유통)위반 5개소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및 보관 15개소 ▲표시기준 위반 36개소 ▲원산지 허위표시 2개소 등 기타 22개소 등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가운데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소속(가맹점) 21개소를 포함하여 총 94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개소는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성남시 소재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A가맹점에서는 본사에서 공급받은 소고기 고추장볶음의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당일 조리된 것처럼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B도시락생산업체는 원료를 보관하는 냉장실에 오래된 식자재를 방치해 곰팡이가 피어있었고, 제조가공실 바닥과 조리대에도 곰팡이와 음식물 찌꺼기가 있는 등 불결한 업소관리로 단속에 걸렸다.

학교급식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핫도그를 제조 납품하는 화성시 소재 C업체는 튀김 기구에 기름때가 끼여 있는 등 조리기가 불결하고 전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냉동보관실에 걸레와 핫도그를 함께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김승철 기자 kimsy@metroseoul.co.kr

가평군 ‘사전심사청구제’ 호평에 5종 확대

경기도 가평군은 민원편의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에 따라 ‘사전심사청구제’를 현행 9종에서 14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정식민원 신청 전에 약식서류만으로 인·허가의 거부와 이행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대상에는 개발행위, 농지전용허가 등 기존 9종에서 보육시설설치, 폐수배출시설설치, 대기배출시설설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건축허가 등 5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민원인이 약식서류를 제출하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대상사무는 군 홈페이지(www.gp.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평군청사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 확대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적극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민원 맞춤형 신뢰행정을 도모하고 민원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 가평=고성철 기자 ksc@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제품 홍보 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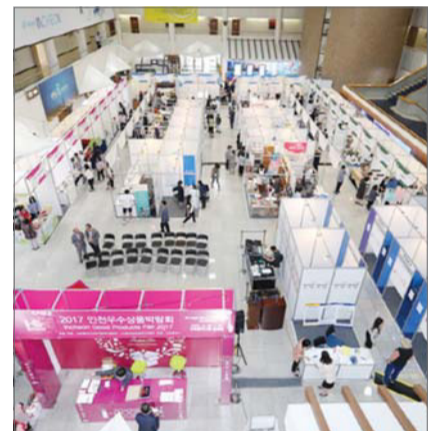
‘2018 인천우수수산물 박람회’ 개최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시청 중앙홀에서 ‘2018 인천우수수산물박람회’(이하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실천하는 기업을 말한다.

기업들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55개 기업이 참여한다. 식품, 공예품, 생활용품, 의료용품 등 다양한 제품의 홍보와 전시 판매, 경품이벤트, 문화공연 등도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위메프 등 다양한 유통관련 바이어(MD)들이 참가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유통채널 확대를 위한 상담도 진행된다. 인천시의 다양한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



2017 인천우수수산물박람회 사진 /인천시

으로 공공구매 담당 및 기업 매칭을 실시된다.

센터 관계자는 “행사에 참여하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통해 착한기업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홍보할 계획”이며 “앞으로 i-Good Fair를 브랜드 화해 사회적경제의 대표 박람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편싸움’ 광주시의회, 조직개편도 차질 우려

반대측 의원 9명 본회의 모두 불참
집행부 요구 주요업무 줄줄이 차질

광주시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반쪽 선거’로 의정단을 선출했지만, 의원 간 편싸움이 계속되면서 집행부의 조직개편 등 현안이 줄줄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2일 오전 김동찬 신임 의장 주재로 본회의를 열었지만 반대측 반재신 의원 지지 의원 9명이 모두 불참해 끝바로 정회했다.

시의회는 전날 의정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 배정 작업에 착수했지만 반재신 측 의원들이 상임위원 배정에 관련한 의사 표현마저 거부하면서 대화가 단절된

상태다. 의정단 선출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과 행이 이어지면서 상임위원장·운영위원장 선출은 물론 시 집행부가 의회에 요구한 주요 업무들도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됐다. 시 집행부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가장 시급한 안건으로 조직개편 등이 올라와 있지만, 정상적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2018년 정부의 현장인력 증원 계획에 따라 승진된 146명을 반영해 3월 6급 3본부 58과에서 4월 6급 3본부 62과로 1월 4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능 강화를 위해 경제부시장을 문화와 경제 부문을 전담하는 문화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의회 파행 등으로 조직개편안이 아직 시의회에 접수되지 못했지만 시는 의원들을 상대로 조직개편안을 설명하면서 대비하고 있다.

광주시로서는 조직개편안에 이용섭 시장 임기 초기 민선 7기 시정 방향 등을 반영한 만큼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대한 조직개편안을 설명하는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데다 전체 의원 23명 중 20명이 초선 시의원들인 상태에서 내용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조직개편은 민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광주=봉재영 기자 bcy2020@

경기도 ‘친환경 축산업육성 워크숍’ 성황

경기도 축산인들이 친환경 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12일 오전 화성시 병점동 소재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2018년도 친환경 축산업육성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지역축협 관계자, 도·시군 축산업담당자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업의 현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강의하고, 깨끗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축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족분뇨 관리정책 관계자 및 축산환경전문기관의 관계자를 강연자로 초청했다.

이에 따라 이날 워크숍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상돈 사무관이 ‘가족분뇨 자원화정책방향’을, ▲축산환경관리원

박치호 부장이 ‘축산냄새 관리방안’, ▲축산환경관리원 이상원 부장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대해 각각 발표한 후, 현장에서 참석자들 간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부담을 줄이고, 가족분뇨의 적정처리와 축산냄새저감을 위해 축산환경개선 사업 등 5개 분야에 237억 원을 투입,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축산업을 육성 중이다.

김영수도 축산정책과장은 “노후 축사 개선, 분뇨처리시설 확충, 악취저감시설의 설치·지원도 필요하지만 친환경 축산업 육성 교육을 통해 축산농가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가족분뇨는 유기질 비료 자원으로, 축사는 냄새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고성철 기자 ksc@

전남도의회 윤리특별조

김희동 의원 ‘위원장’ 선출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1일 윤리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김희동 의원(민평당, 진도)을 위원장으로, 김길용 의원(더민주, 광양3)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모두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내년 6월 말까지 1년 동안 ‘전라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해 회부된 의원들의 징계와 자격을 사후적으로 심사한다.

김희동 위원장은 “모범적인 의원상 정립을 위해 윤리특위 위원 모두가 더욱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제 11대 도의회가 어느 때보다도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이미지의 도의회로 거듭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5555knj@



영광소방서 화재발생 대응 현지적응 훈련

영광소방서(서장 박주익) 함평119안전센터는 지난 11일 관내 함평천지종합복지관에서 안전관리를 위한 현지적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훈련은 소방사다리차, 구급차 등 소방차량 5대, 소방공무원 및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신속한 대응능력 및 사고수습 능력 배양을 위하여 마련됐다.

주요훈련내용으로는 ▲119신고요령 및 인명대피훈련 ▲관계자 중심 구조대

사용요령 교육 및 훈련 ▲소방출동로 확보 및 고가사다리차 전개훈련 ▲내소 화전등 소방시설을 이용한 초기화재 진압훈련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건물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현지적응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 영광=은하수 기자 ehs1203@



A RECORD OF 36 days, 2 hours, 37 minutes - LIMITED EDITION

ITALIAN DESIGN - LIMITED EDITION
 HONG KONG - LONDON
 THE TEA ROUTE
 A RECORD OF
 36 days,
 2 hours and
 37 minutes
 LIMITED EDITION 0301/2000

HONG KONG - LONDON
THE TEA ROUTE



MASERATI
 COLLECTION

www.timedaily.co.kr
 Almanac 070-7840-1715



휴롬

“원액기 노하우 담은 ‘휴롬주스’ 만나세요”

첨가물 없는 100% 과일·야채

원액기 제조사로 잘 알려진 휴롬이 1인 가구 시장 등을 겨냥해 주스 시장에 본격 뛰어들었다.

휴롬이 자사의 원액기로 착즙해 판매를 시작한 ‘휴롬주스’ (사진)는 특히 물이나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100% 과일과 야채로만 만든다.

휴롬은 휴롬주스를 론칭하고 공식소핑몰인 휴롬샵을 비롯해 랭킹닷컴, 락식 등 온라인몰을 통해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종류는 케일, 시금치, 당근, 비트, 사과, 오렌지, 파인애플 등 다양한 채소 과일을 배합해 만든 5종의 착즙주스와 2종의 기능성 주스를 포함해 총 7종으로 구성됐다. 휴롬은 바로 짜서 마시는 주스와 동일한 맛과 영양소 등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 바이오식품연구소가 제품 연구·개발에만 1년 이상을 준비했다.

휴롬이 2016년 당시 개발한 숙취해독 주스와 다이어트용 주스는 모두 학계에서 인정받을 만큼 정평이 나 있다. 이같은 노하우를 살려 최대 1개월까지 유통, 보관할 수 있는 주스를 개발한 것이다. 다만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제조일로부터 보름 이내에 음용하는 것이 좋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휴롬주스는 제품화를 위해 저속으로 지그시 눌러 짠 핸드메이드 주스를 대량으로 패키징하는 자동화공정도 도입했다.

당장은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가맹점 등을 통해 오프라인 판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국내 최고 수준 감염관리 시스템 ‘환골탈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개편

병상 절반으로 줄이고 면적 넓혀 1인 격리실로 원내감염 원천 차단 간호사·약사 증원에 의료질 향상

이대목동병원이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인력을 1등급(간호사당 병상수 0.5개 미만) 수준으로 늘리고 22병상을 11개의 1인 격리실로 바꾼다. 또 입원한 미숙아 등에게 주사하는 완전정맥영양제(TPN) 조제실을 무균실로 운영하고 주말에도 ‘TPN 당일 조제’가 가능하도록 약사 6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대목동병원이 22억 원을 투자해 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 진료 환경과 약제과의 TPN 조제 시설 등을 새롭게 구축하는 공사에 돌입하고 인력 보강 및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대대적 혁신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생했던 신생아중환자실 사망 사건 후 폐쇄됐던 신생아중환자실과 관련 시설 및 인력, 프로세스를 환자 안전과 감염 예방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지난 6월 29일 전면적인 개선 공사에 들어가 8월말 완료 예정인 신생아중환자



이대목동병원 전경.

/이화의료원

실은 국내 최고 수준의 감염 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신생아중환자실은 기존 22병상에서 11병상으로 병상 수를 대폭 축소해 병상당 면적을 2배 이상 늘렸고 전 병상을 음압격리 2실과 양압격리 1실을 포함한 1인 격리실로 설계해 원내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또한 진료 프로세스에서도 감염병이 의심되는 신생아는 입구에서부터 음압 격리실을 경유하도록 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젓병 세척, 소독, 조유 등의 간호 활동 또한 한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해 단계별로 감염을 차단하고, 오물처리 및 세척과 소독 또한 한 방향의 동선으로 구성해 감염을 철저하게 예방할 계획이다.

인큐베이터, 인공호흡기 등도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인력 또한 강화된 인력 기준에 맞춰 신생아중환자실 1등급인 간호사당 병상 수 0.5 미만 기준을 충족하도록 간호 인력을 23명(간호사당 병상 수 0.48)으로 증원하고 향후 병상 가동률 추이를 감안해 최대 26명(간호사당 병상 수 0.43)까지 늘릴 예정이다.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최대한 줄여 담당 환아에게만 집중, 최고 수준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약국 내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 완전정맥영양)실도 전면 개선해 조제 단계에서부터 약 불출까지 국내 최고 수준의 감염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로운 TPN실은 항암주사 제조실과 같은 엄격한 감염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병원 내 중앙 배기구와 독립된 배기 장치를 가진 무균조제대 2대를 신규 설치하고, 헤파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를 설치한 무균실로 운영한다. 또한 조제된 TPN은 패스박스(Pass Box)를 통해 전달되며, 준비실로 통하는 입구에는 에어샤워(Air shower)기도 설치해 감염원이 TPN조제실에 들어갈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대비한다.

이와 함께 약사 인력을 6명 증원해 주말에도 평일과 같이 TPN 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문병원 이화의료원장은 “지난 해 발생한 신생아중환자실 사태와 관련해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며 “이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병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신생아중환자실 및 TPN조제실 전면 개선 공사는 물론 간호사 및 약사 인력도 대폭 늘리는 등 전반적인 진료 환경과 진료 프로세스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에도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종합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국내 최고 수준의 안전한 병원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왼쪽부터)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동휘 CJ대한통운 부사장, 김정훈 UN지원SDGs한국협회 사무대표가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실버택배’ UN서 인정

‘UN SDGs 기업이행상’ 수상 공유가치창출 충실 이행 인정



CJ대한통운 실버택배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1일 서울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UN지원SDGs한국협회 7주년 기념행사’에서 CJ대한통운의 실버택배가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지속가능경영을 이행한 기업에게 수여되는 ‘UN SDGs(국제연합 지속가능발전목표) 기업 이행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사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점검을 위해 매년 7월 뉴욕 UN 본부에서 열리는 UN 고위급 정치 회의인 ‘2018 고위급 정치 포럼(HLPF)’의 개최와 글로벌 리더들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을 위한 ‘SDGs 글로벌 네트워크’ 출범식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에 앞장선 기업들에게 UN SDGs 기업 이행상을 수여하는 시상식도 함께 진행했다.

행사를 주관한 UN지원SDGs한국협회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책임을 바탕

으로 지속가능경영에 앞장섰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UN SDGs 기업 이행상을 수여했다.

특히 CJ대한통운의 실버택배는 기업의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사회에 공헌하는 CSV(공유가치창출)에 충실했고,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기반으로 고객 화사회에 따른 노인일자리 문제해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평가다.

CJ대한통운 ‘실버택배’는 택배차량이 아파트 단지까지 물량을 싣고 오면 어르신들이 친환경 전동 카드 또는 손수레를 이용해 각 가정까지 배송하는 사업모델이다.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회사의 배송 서비스를 높여 기업과 사회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CJ그룹의 대표적 CSV 모델이다.

한편 지난 5월에는 CJ대한통운의 실버택배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니셔티브(SDGs)’에 우수 사례로 ‘SMART 인증’을 받아 UN 공식홈페이지에 등재되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함께 쓰는 오피스’ 서브윈 “강남 사무실 무료로 쓰세요”

‘플래그윈 강남캠프’ 오픈 이벤트 4개월 이상 계약시 추가 2개월 덤



플래그윈 서브윈 강남빌딩 전경

공유오피스사업에 뛰어들어 서브윈이 8월초 본격 오픈을 앞두고 또 다시 이벤트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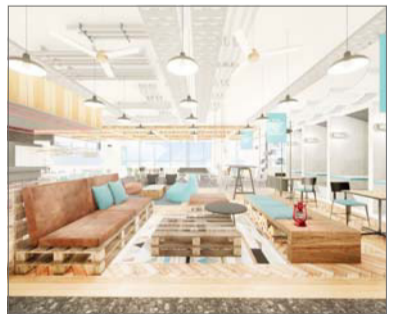
서브윈은 서울지하철 3호선 양재역 인근에 준비하고 있는 공유오피스 ‘플래그윈 강남캠프’가 13일부터 50석에 한해 ‘4+2 사전예약 이벤트’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4개월 이상 계약시 추가 2개월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서브윈은 관련 사업 진출을 알리면서 지난 6월에도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다. 플래그윈 강남캠프는 앞서 사전 이벤트를 한 지 1주일만에 선착순 50석이 조기 예약이 끝난 바 있다.

플래그윈 황준오 상무는 “플래그윈은 8월 오픈 이후에 입주자들의 워라벨(워크앤라이프 밸런스)을 실현하고 비즈니스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차별화되고 특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면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할인 혜택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브윈은 또 플래그윈을 한 달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SNS 이벤트도 진행한다. 13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약 2주간 플래그윈 공식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방문해 신청하면 이 가운데 2팀을 뽑아 월 200만원 상당의 3인실 프라이빗 데스크를 각각 한 달간 무료로 제공한다.

한편, 오픈을 한 달 앞둔 플래그윈은 입주자들의 성공 비즈니스를 돕는



플래그윈 13층 메인라운지 전경.

신개념 공유 오피스로 교통의 요지인 양재역 2분거리에 있는 서브윈 강남빌딩 3개층에 600석 규모로 마련중이다. 플래그윈은 입주기업의 규모와 목적에 따라 최적화된 업무공간을 조성해 1~2인 스타트업부터 200인 이상의 기업까지 폭넓게 입주할 수 있다.

또한 업계 최대 크기의 사무용 데스크를 비롯해 다양한 테마로 적용된 13개 회의실, 층별 라운지, 명상공간 케이브룸과 LP음악감상공간 하이브룸 등 다채로운 테마의 휴게 공간도 운영한다. 특히 업계에서 유일한 250석 규모 대형 강당과 세미나룸을 갖춰 스타트업과 같은 소규모 기업들도 큰 비용부담 없이 쇼케이스,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도 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중기중앙회

미국 시카고·싱가포르에 中 中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중소기업중앙회가 싱가포르와 미국 시카고에 각각 네트워크를 만들고 우리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에 맞춰 싱가포르 현지를 방문하고 있는 경제사절단이 12일 ‘싱가포르제조업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들을 위한 ‘신남방 진출 지원데스크’ 설치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000여 개의 제조업체들을 회원으로 둔 싱가포르제조업연합은 2014년부터 중기중앙회와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신남방 진출에 대한 관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글라스푸싱가포르제조업연합회장은 “싱가포르 진출을 추진하는 한국 중소기업이 희망한다면 연합회 본사 건물의 일부 공간을 6개월 정도 무상 지원할 수도 있다”며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승호 기자

수치로 보는 오리온 포카칩 30년

1분에 100봉·17억봉 판매·감자 22억개·누적매출 1.4조

‘생감자 열풍’ 일으키며 국민과자 등극
최적의 두께로 만드는 기술 인기 비결

올해 출시 30주년을 맞은 오리온의 ‘포카칩’이 국내 누적매출액 1조4000억원을 돌파했다.

12일 오리온에 따르면 지난 1988년 7월 출시된 ‘포카칩’은 지난 6월까지 약 17억

봉 가량 판매됐다. 30년 동안 1분에 100봉 이상씩 팔린 셈이다. 그 동안 사용한 감자의 개수는 약 22억 개에 달하며, 이는 10트럭 4만 대 분량에 해당한다.

포카칩은 ‘초코파이’와 더불어 오리온의 성장을 이끌어온 대표 제품이다. 오리온은 생감자칩이 1980년대 후반 유럽 등 선진국에서 ‘스낵의 꽃’이라 불리며, 원물을 그대로 가공한 과자로 인기를 모은 데서 착안해 포카칩을 출시하게 됐다. 당시 포카칩은 밀가루로 만든 스낵 위주의 제과시장에서 생감자 본연의 담백한 맛과 특유의 바삭한 식감으로 ‘생감자칩 열풍’을 불러 일으

켰다. 1994년 감자스낵 시장점유율 1위에 오른 데 이어 2012년에는 감자스낵 최초로 연 매출 1000억원을 달성, ‘국민과자’ 반열에 올랐다.

포카칩의 이 같은 성과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오리온은 ‘가장 맛있는 감자칩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1988년 강원도 평창에 ‘감자연구소’를 설립해 생감자칩에 최적화된 원료 감자 품종을 개발하고, 계약재배 농가를 위한 영농기술을 보급해왔다. 현재는 감자 재배 우수 농가 500여 명과 계약을 맺고, 연간 2만 톤에 달하는 국산 감자를 사용하며 농가상생에도 기여하고 있다.

포카칩 특유의 식감과 맛을 내기 위해 최적의 두께로 만드는 제조 기술력도 인기 비결이다. 포카칩의 두께는 평균 1.3mm

안팎으로, 전분 등을 포함한 감자 속 고형분 함량에 따라 0.01mm 단위로 달라진다. 오리온 연구원들은 해마다 감자 작황에 따라 제품의 두께를 미세하게 조정하며 최고의 맛을 구현해내고 있다.

오리온은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시장에서도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생감자 스낵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2016년 ‘하오우취’ (好友趣 스낵)가 연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며 ‘메가 브랜드’에 올랐다. 베트남에서는 2017년 ‘오스타’ (O’ Star 포카칩)가 현지 생감자 스낵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유수의 글로벌 브랜드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다.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품 혁신도 지속하고 있다. 2015년 제과 제품의 과대포장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생산

공정을 개선해 포카칩 봉지 속 빈 공간 비율을 환경부에서 허용되는 35%보다 훨씬 낮은 25% 미만으로 낮추고, 가격 변동 없이 제품의 양을 10% 늘린 것. 오리온 윤리경영 ‘착한포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당시 제과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오리온은 포카칩 출시 30주년을 맞아 기념 이벤트도 실시한다. 오리온 공식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기면 자동으로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증정한다.

오리온 관계자는 “30년간 변함없이 포카칩을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맛있고 품질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원칙 아래 고객, 감자농가, 오리온이 함께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제품 혁신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습한 날씨 속 빨래 꼼꼼함 없애는 세탁 꿀팁

오염물질 제거 세제 쓰고 세탁조 청소

섬유 속 찌든때·세균 제거 탁월
헹굼 땀 섬유유연제보다 구연산
제습기 등 습도 낮추기 효과적



애경산업의 ‘올 뉴 리큐’를 사용해 세탁하는 모습. /애경산업

여름철 골칫거리 중 하나는 빨래다. 고온 다습한 날이 이어지면서 빨래 양은 많아지지만 빨래를 하더라도 실내 건조로 온 집안에 습기가 더해지고 잘 마르지 않은 옷에 끈적한 냄새가 남기 때문이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고온 다습한 날씨에는 평균 실내 습도가 80~90%까지 증가해 세균번식이 쉽게 일어나고 이는 끈적한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세탁물 냄새의 원인이 되는 섬유 속 찌든때와 세균을 제거하고 세탁기 세탁조도 함께 관리하면 냄새 및 찌든 때를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탁물 냄새를 잡아주는 세탁제 사용
세탁 후에도 남아있는 빨래 냄새의 원인 중 하나는 섬유 속 찌든 때다. 제대로 세탁되지 않은 옷에 피지, 단백질, 기름얼룩 등 속때가 쌓이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찌든 얼룩으로 변질돼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올바른 세탁이 중요하다.

빨래의 끈적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섬유 속 오염물질 제거에 효과적

인 세탁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리큐의 ‘올 뉴 리큐’는 세탁제제 본연의 세척력을 높여 세탁물 냄새의 원인 중 하나인 섬유의 속때를 제거해 옷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준다.

고온 다습한 날씨에는 빨래 헹굼 시 섬유유연제 대신 구연산을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구연산을 적은 빨래에는 1스푼, 많은 빨래에는 2스푼 정도 넣어 주면 세균 및 냄새 제거는 물론 섬유유연제 효과까지 낼 수 있다.

◆세탁의 기본은 세탁조 청소
세탁조는 변기 안쪽보다 100배 이상 오염된 것으로 알려져 세탁조를 청소 해주지 않으면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어려움으로 세탁조를 한 달에 한번씩 관리해 주는 것이 좋다.

세탁조 청소에는 과탄산소다를 사용

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세탁조에 과탄산소다를 적당량 부어주고 온수를 가득 채워 넣은 후 표준 코스로 5분정도 세탁해준다. 전원을 끈 상태로 1~2시간동안 둔 뒤 5회 이상 헹굼으로 돌려주면 세탁조 오염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준다.

더욱 간편한 방법으로는 세탁조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있다. 애경에스티 ‘홈즈 퀵크린 세탁조 크리너’는 액체타입으로 곰팡이와 각종 유해세균을 99.9% 제거하고 오염 재부착방지제를 함유해 떨어져 나온 오염물질이 세탁조에 다시 들러붙지 않도록 도와준다.

◆꼼꼼한 냄새 없애는 건조방법
세탁 후 빨래를 꺼내지 않고 그대로 두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 즉시 건조시키는 것이 좋다. 빨래가 가장 마르지 않는 부분은 옷의 안쪽에 위치해있는 주머니와 후드, 봉합부분이므로 옷을 뒤집어 말리는 것이 빠른 건조에 도움이 된다.

또한 선풍기와 제습기를 이용해 실내 습도를 40~60%로 낮춰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면 빨래를 건조시키는데 효과적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신문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옷의 간격을 넓혀 빨래 사이에 신문지를 끼워 주면 신문이 수분을 흡수해 빨래를 건조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김민서 기자

동물복지 고기로 만든 ‘우리아이 첫 물만두’

풀무원

냉동만두 최초 동물복지 인증 받아
아이들 위해 나트륨 함량 대폭 감소



풀무원이 국내 최초로 동물복지 돼지고기로 만든 유아용 만두를 선보였다.

풀무원식품은 ‘생가득 우리아이 첫 물만두 버섯&돼지고기’, ‘생가득 우리아이 첫 물만두 치즈&파프리카’ (사진)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우리아이 첫 물만두’는 국내 시판 냉동만두 최초로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돼지고기를 사용한 제품이다. 선진FS의 동물복지 돼지고기 브랜드 ‘선진포크 바른농장’으로부터 공급받아 제조했다. 넓은 사육 공간과 쾌적한 온도와 습도의 유지, 상시적인 건강 관리 등 70여개 항목의 세

부 기준을 마련해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우리아이 첫 물만두’는 만 12개월 이상이면 섭취 가능하다. 성장기 아이의 나트륨 과다 섭취를 고려해 시판 물만두 대비 나트륨 함량을 대폭 낮췄다.

‘생가득 우리아이 첫 물만두 버섯&돼지고기’는 동물복지 돼지고기와 새송이버섯, 표고버섯, 양배추, 양파 등 채소를 곁들여 다진 만두소를 담아 아이가 씹기에도 부드럽게 만들었다. /김민서 기자

세븐일레븐, 에일맥주 ‘행복충전주’ 출시

수제맥주 제조사 세븐브로이와 협업



세븐일레븐이 수제 맥주 ‘행복충전주’를 출시했다. /세븐일레븐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맥주 성수기’를 맞아 수제맥주 전문제조업체인 세븐브로이와 함께 프리미엄 수제맥주 ‘행복충전주’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행복충전주’는 에일 계열의 맥주로 알코올도수는 5.5%다. 다량의 홉을 사용한 진한 맛과 풍미가 일품이며, 부드러운 거품과 함께 특유의 씹스름한 끝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민서 기자

밀키스에 스누피가 풍당... ‘스누피 에디션’ 9월까지 한정판매

롯데칠성음료 3가지 이미지 구성
에코 절취선 라벨로 재활용성 높여



롯데칠성음료의 대표 유유탄산음료 ‘밀키스’가 인기 캐릭터 ‘피너츠(Peanuts)’와 손잡고 ‘스누피 에디션’ (사진)을 한정판으로 선보였다.

스누피 에디션은 지난 1950~2000년까지 미국에서 연재된 신문만화의 대명사 피너츠의 인기 캐릭터 ‘스누피’를 적용한 제품으로, 밀키스 브랜드에 신선함을 불어넣고 소비자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기

위해 기획했다.

롯데칠성음료는 밀키스의 패키지 디자인, 음료 색상, 부드러운 맛을 대표하는 상징색인 하얀색이 스누피 캐릭터와 잘 어울리고, 밀키스를 즐기는 주요 소비자층과 스누피를 선호하는 소비자층과 일치한다고

판단해 해당 캐릭터를 제품에 적용했다.

밀키스 스누피 에디션은 무더운 여름과 어울리도록 스누피가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이미지, 서핑을 즐기는 이미지 뿐만 아니라 스누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빨간 지붕 위에 쉬고 있는 이미지 등 총 3가지로 구성됐다. 250ml 캔과 500ml 페트병에 적용되어 오는 9월까지만 한정 생산된다.

페트병 제품은 소비자가 라벨을 몸체에서 깔끔하고 손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비접착식에 에코 절취선 라벨을 적용해 재활용성을 높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이디야커피 ‘니트로’ 신메뉴 100만잔 돌파

신메뉴 3종, 출시 2개월 만에 기록

이디야커피의 니트로커피 신메뉴가 100만잔 판매를 돌파했다.

이디야커피는 지난 4월 월드바리스타 챔피언십(WBC) 우승자 데일 해리스와 공동 개발해 출시한 ‘니트로 스위트’ ‘콜드브루 라떼’ ‘콜드브루 화이트비엔나’ 등 니트로군 신제품 3종이 출시 2개월 만에 100만잔 판매를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니트로군 제품은 출시 이후 하루 평균

1만3000여 잔 이상 판매됐다. 이는 지난해 3월에 출시된 기존 니트로커피 제품의 판매 추이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실제 올해 5~6월의 니트로커피 제품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니트로커피의 기반인 콜드브루의 저변 확대와 함께 다양한 제품 출시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힌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본격적인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판매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서 기자

“소방관님 힘내세요” LG전자 방화복 세탁기 기증

방화복 전용 세탁코스 개발해 20대 기증

LG전자가 소방관들이 방화복을 편리하게 세탁할 수 있도록 '방화복 세탁기'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LG전자와 인천소방본부는 11일 인천시 주안동에 위치한 인천남부소방서에서 임정수 한국B2B마케팅담당과 임상무 어플라이언스B2B담당, 김영중 인천소방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화복 세탁기 기증식을 가졌다.

LG전자가 인천소방본부에 기증한 방화복 세탁기는 총 20대다. 인천소방본부는 방화복 세탁기가 소방관들의 근무환경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전자는 방화복 세탁기가 부족해 소방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지난해 여름에 전해 듣고 곧바로 제품 개발을 시작했으며 같은 해 12월 제품을 출시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인정시험과 제품검사를



LG전자가 기증한 방화복 세탁기는 총 20대로, LG전자는 방화복 세탁기가 소방관들의 근무환경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전자

통과하며 KFI 인증도 획득했다.

일반 세탁기에서는 세탁통이 회전하면서 빨래에 가해지는 원심력 때문에 방화복이 손상돼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LG전자는 세탁통의 회전속도, 행균, 탈수 등 세탁 알고리즘

을 조절해 방화복 전용 세탁코스를 개발했다. 고객들이 가정에서 란제리, 울 소재, 기능성 의류 등을 세탁할 때 사용하는 전용 세탁코스 와 비슷한 원리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한국철강협회 철강산업인적자원개발협의회(철강 SC)는 12일부터 13일까지 대전 동국제강 연수원에서 전국 금속관련 4학년 및 대학원생 70여명을 대상으로 철강분야 취업캠프 및 취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철강협회

철강협회

취업캠프 개최... 일자리 창출 앞장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업계가 공동으로 취업캠프 및 취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

한국철강협회 철강산업인적자원개발협의회가 12일부터 13일까지 대전 동국제강 연수원에서 전국 금속관련 4학년 및 대학원생 70여명을 대상으로 철강분야 취업 캠프 및 취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철강 SC가 개최하는 이번 캠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후원으로 금년에 처음 개최하는 행사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철강업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연우 기자 yw064@

현대모비스 어린이 교통안전 지켜줄 UCC 공모전 개최



현대모비스가 제작한 투명우산을 받은 초등학생들이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을 확산하기 위해 '투명우산 나눔 교통안전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12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올해 3회째를 맞는 공모전은 우선 시 시야를 확보해주는 투명우산 사용의 필요성을 알리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투명우산 사용의 필요성과 어린이 교통안

전'을 주제로 일반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주제와 관련한 5분 이내의 UCC 영상을 제작해 '어린이 교통안전 투명우산 나눔활동'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8월 말까지다.

현대모비스는 주제의 적합성과 내용의 참신성 등을 종합 평가해 총 10개의 우수작을 선정, 9월 중순에 시상할 예정이다.

/양성문 기자 ysw@

현대엔지니어링

UN 지속가능발전목표 기업 이행상 수상

현대엔지니어링이 UN 지원 SDGs 한국협회 주최로 개최된 'UN HLPF 한국 기념식'에서 'SDGs(UN 지속가능발전목표)기업 이행상'을 수상했다.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UN HLPF는 유엔이 지속가능개발 이행 점검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뉴욕 UN 본부에서 개최하는 포럼으로, 한국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년간 기여 경영에 SDGs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UN SDGs 기업 이행상을 받았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오늘의 운세

7월 13일 (음 6월 1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씨를 뿌려야 수확을 하듯이 노력이 우선. 60년생 쉽게 얻어지는 것은 쉽게 나감을 명심. 72년생 숫자 8, 남쪽이 좋은 운을 준다. 84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는 날이니 도장 찍을 일이 있다면 미루는 것이 좋다.
- 소** 49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잘 해결된다. 61년생 친척의 방문으로 하루가 행복하다. 73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지중자에. 85년생 숨은 실력을 자랑하고 남들도 알아주는 기회가 주어지는 날.
- 호랑이** 50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크게 보고 행동하라. 62년생 변화의 운이 있으니 현명한 판단이 필요. 74년생 배우자 외 다른 사람의 만남에 주의. 86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
- 토끼** 51년생 때로는 아랫사람의 말도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 63년생 하나를 투자하면 열을 얻는다. 75년생 좋은 말로 속삭이는 사람을 경계. 87년생 강을 건넜다고 배를 소홀히 해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 말** 52년생 내키지 않는 일을 해야 하니 마음이 아프다. 64년생 기대를 한 만큼 노력도 그만큼 해야 한다. 76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하면 더 피곤. 88년생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이는 법이니 아량을 베풀자.
- 뱀** 53년생 신세 졌던 사람에게 빚을 갚는 날. 65년생 돌이 있어 느끼는 외로움이 혼자인 외로움보다 크다. 77년생 꿀을 얻으려면 벌을 키워라. 89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노력하라.

- 말** 54년생 후회 없이 기본 좋은 하루. 66년생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면 내게 해가 되어 돌아온다. 78년생 심신이 피곤하나 재물은 들어오는 날. 90년생 한 발 물러서서 보면 하늘도 높고 갈 길도 보인다.
- 양** 55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날. 67년생 길 떠나는데 폭풍을 만나니 비웃고 우산이 필수. 79년생 의외의 조력자가 바로 앞에 있다. 91년생 명예는 높이지만 실속은 별로 없는 속 빈 강정.
- 원숭이** 56년생 최선의 해결책은 타협이다. 68년생 행운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니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라. 80년생 오늘은 양보와 희생이 미덕이다. 92년생 집 나간 말이 가족을 일러서 돌아오니 이득이 많은 날.
- 닭** 57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69년생 동료와 협력이 서로에게 이익을 준다. 81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지 않는 법. 93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먹기 나름.
- 개** 58년생 나라 밖에서 기본 소식이 온다. 70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니 욕심을 부리지 마라. 82년생 약점은 가족에게도 말하지 마라. 94년생 건강이 우선이니 운동을 게을리하지 말고 먹는 것에 신경 쓰라.
- 돼지** 59년생 용서보다 완벽한 복수는 없다. 71년생 북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행운이 따르겠다. 83년생 바람이 분다고 흔들리지 않는다. 95년생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떠나도 오늘은 거칠 것이 없었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 | | | | | | | | |
|---|---|---|---|---|---|---|---|---|
| | 3 | | 1 | | 4 | | | |
| 5 | | | | 4 | | | 3 | 8 |
| | | | 8 | | 6 | | | |
| 2 | | 3 | | 6 | | 9 | 4 | |
| | 7 | | 4 | | 2 | | | |
| | | 9 | | 1 | | | | 7 |
| 6 | 4 | | 2 | | | | | 3 |
| | 5 | | 3 | | 2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6 | |
| 2 | | | | | | | | |
| | 6 | 1 | 8 | | | | | 4 |
| 5 | | | 4 | 2 | | | | |
| 6 | 1 | | | 5 | 9 | | | |
| | | 3 | | | 1 | 7 | | |
| 8 | 5 | | 1 | | | | 3 | |
| | 7 | 2 | | 6 | | | 5 | |
| | | 6 | | 7 | 4 | | | 1 |

| 스도쿠 정답 | | | | | | | | |
|--------|---|---|---|---|---|---|---|---|
| 7 | 6 | 5 | 1 | 2 | 9 | 3 | 8 | 4 |
| 9 | 2 | 7 | 8 | 4 | 5 | 6 | 1 | 3 |
| 8 | 4 | 1 | 6 | 5 | 2 | 7 | 9 | 3 |
| 2 | 8 | 9 | 3 | 7 | 6 | 4 | 1 | 5 |
| 4 | 3 | 8 | 2 | 6 | 7 | 5 | 9 | 1 |
| 1 | 9 | 2 | 7 | 4 | 8 | 3 | 5 | 6 |
| 5 | 7 | 6 | 8 | 9 | 1 | 2 | 4 | 3 |
| 3 | 5 | 2 | 9 | 4 | 8 | 7 | 6 | 1 |
| 1 | 8 | 4 | 7 | 6 | 9 | 2 | 5 | 3 |
| 6 | 9 | 3 | 5 | 1 | 8 | 4 | 2 | 7 |
| 8 | 1 | 2 | 7 | 4 | 5 | 9 | 6 | 3 |
| 6 | 7 | 5 | 8 | 9 | 2 | 1 | 3 | 4 |
| 2 | 9 | 4 | 2 | 6 | 1 | 7 | 5 | 8 |
| 5 | 6 | 2 | 1 | 8 | 9 | 4 | 7 | 3 |
| 3 | 4 | 7 | 6 | 5 | 2 | 8 | 1 | 9 |
| 9 | 8 | 1 | 4 | 3 | 7 | 1 | 6 | 5 |
| 7 | 2 | 6 | 5 | 4 | 8 | 1 | 9 | 3 |
| 4 | 2 | 8 | 9 | 1 | 6 | 5 | 7 | 2 |
| 1 | 5 | 9 | 1 | 7 | 2 | 6 | 8 | 4 |

문제 제공= 보너스



김상회의四季

친할수록 돈거래는 금물이건만...

친할수록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돈거래다. 그럼에도 차마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 친구 사이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들의 돈 문제인 것이다.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은 빌려줄 돈이 없다 해도 현금서비스 또는 마이너스대출이라도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친한 친구나 지인 형제들 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일들은 보통 겁재(劫財: 재물을 겁탈 당함)운에 들었을 때 종종 경험하게 되는 일이다. 겁재 운이 들면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돈 문제 재물문제로 곤궁에 처하게 된다. 이런 시기에 일어나는 재물 문제는 결코 또한 좋지 않은 것이 상례이다. 어떤 경우는 사귀는 여자나 남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남녀 모두 재성(財星)에 충살(沖殺: 충돌하는 기운)이 들을 때 생기는 일이다. 사업을 하는 남편이 사업자금을 빌릴 때는 보통 아내에게 돈을 빌려오라 한다. 이럴 때는 남편의 재성을 살펴야 함이 마땅하겠지만 당장 급해하는 남편을 거절하지 못해 아내의 여기저기서 돈 빌리느라 마음고생을 하기도 한다. 남자의 경우 재성은 재물과 여자 운을 나타내기에 만약 운기가 좋지 않을 때라면 재물도 깨지고 아내도 떠나가정이 와해되기도 한다. 깨진 항아리에 물 붓듯 괜히 좋지 않은 결말이 보임에도 보통 재성이 충 함을 받는 운기일 때 발생하는 일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절하기 힘든 경우라면 상대방의 운기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차용하려는 이가 인수 운에 충함을 받지 않고 있다면 돈을 빌려줘도 돌려받을 공산이 크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주는 마음으로 주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인간관계가 소원해지더라도 거절을 하는 것이 차라리 돈 잃고 친구 잃고 하지 않는 지혜가 된다. 유대인들은 부모 자식 간에도 돈 거래를 할 때는 차용증서를 쓴다고 한다. 중세 때부터 금융거래의 대가를 배출한 유대인들의 돈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서를 쓰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금액의 다소도 문제겠지만 차용증서를 쓰지는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신뢰는 물론 그간의 관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다는 인식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돈은 빌려준 이상 그다음엔 빌려준 사람이 무를 꿏고 받아야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런데 왜 차용증서를 쓰면 안 된다는 말인가? 이런 이유로 친한 사이일수록 돈거래는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행여 꼭 빌릴 곳이 없어 빌려야 한다면 반드시 피하지 말고 갚는 것이 인생의 예의일 것이다.

외국환거래



**한태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외국환거래는 일상에서 빈번히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를 행하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해당 내용이 외국환거래 사항인지, 나아가 법령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로 아무 문제없이 지나가곤 한다. 문제는 외국환거래위반이 발생되고 나서 위반임을 인식하는 경우다. 제재를 받거나 과태료 등을 부과 받고 나서야 위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갖게 하여 무의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환거래는 중요 관심 대상이다.

외국환거래는 기본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구체적 제한사항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거래규정만으로 일반인들이 해석하여 외국환거래 신고,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항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본 칼럼에서는 외국환거래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환거래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외국환거래에 대해 확인을 구해야 하는지, 특히 외국환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거주자, 비거주자성에 대한 확인을 통해 외국환거래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먼저 외국환거래규정이 적용되는 외국환거래는 거주자와 거주자간의 원화거래, 비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외화거래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보면 된다. 그 외의 조항은 모두 외국환거래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거주자와비거주자의 구분은 어떻게 할 지가 중요한 부분이다.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 그리고 위법 조항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그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1. 대한민국 재외공관, 2.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국민 i)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ii) 비거주자였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iii) 그 밖에 영업 양도,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i)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ii)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iii)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는 비거주자로 본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하 이 호에서 "미합중국군대등"이라 한다),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금·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3.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4.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i)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ii)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iii)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Iv) 그 밖에 영업 양도,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i)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ii)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iii)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는 비거주자로 본다.

외국환거래 위반은 과태료뿐만 아니라, 징역 및 벌금형까지 규정되어 있다. 특히 형사책임을 통해 강제된다는 점에서 외국환거래행위자는 더욱 유의해야 한다. 외국환거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면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조언을 받는 것도 좋다. 외국환거래의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위법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본다.

/법무법인 바른



GS홈쇼핑, '두날개 프로젝트'에 1.4억 후원금 GS홈쇼핑은 지난 11일 영등포구 문래동 본사에서 영상·미디어분야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획된 '두날개 프로젝트'에 후원금 1억4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회적기업활성화지원센터가 주관해 올해 1월 모집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선 심사를 통해 선발된 최종 선정된 4개팀을 발표했으며, 이들은 이후 본격적인 영상제작에 돌입하게 된다. /GS홈쇼핑



금호타이어 임직원, 중증장애인과 사회체험 활동 금호타이어는 지난 11일 임직원들이 중증장애인과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문화예술체험 전시공간을 찾아 사회체험 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금호타이어 임직원들은 평소 외부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과 르노와르, 반 고흐, 고갱 등 19세기 인상주의 화가들의 명화들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점심 식사 후에는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함께 영화 관람을 했다. /금호타이어



제주항공, 임직원에 아이스크림 무제한 제공 제주항공이 올 여름에도 직원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아이스크림을 무제한 제공한다. 12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무더위 속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정비본부, 객실라운지, 공항현장 등 곳곳에 대형냉장고를 설치하고 오는 8월말까지 다양한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제주항공

공적연금 가입해야 좋을까?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잡짓기**

간혹 공적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세제혜택이 있는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금지급재원이 문제가 된다는 시중의 뉴스에 영향을 받아 민영보험회사나 은행, 증권사를 통해 사적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분명히 개인적인 성향이고 선택이기 때문에 결론은 없다.

다만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후생성 연금의 경우 운용수익률이 적으면 연금지급률이 낮아지고 운용수익률이 좋으면 연금지급률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나라의 공적연금의 경우에도 대책을 세워서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은 미리 예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먼저 공적연금을 먼저 가입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이후 추가적인 이자소득 임대소득,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어 노후에 대비하는 다양한 전략을 소개하고 이를 위한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제안하는 것

이 고객의 현재와 미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전략이 될 것이다.

이때 절세효과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재무계산기 영역이다. 재무계산기는 별도로 다루지 않지만 원리만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보통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세액공제 금액 4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율 13.2%를 적용하여 52만원의 세액으로 공제하게 된다. 이때 400만원을 납입해서 52만원을 받는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월 34만원의 돈을 납입하고 52만원의 돈을 돌려받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인사

◆ 행정안전부 ◇ 국장급 승진 △ 국가정보자원관

| | |
|--|---------------------------------|
| metro 메트로미디어 | |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 |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 편집국장 | |
| 인쇄인 | 중앙일보(주) 김교준 |
| 광고문의 | 02721-9851, 9826 |
| 독자센터 | 02721-9861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100206 2002년5월28일 제3997호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0091호 |

리원 운영기획관 박덕수 △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지원국장 김장호 ◇ 국장급 전보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 성기석 ◇ 과장급 전보 △ 행정안전부 류담당관 고용조 △ 전자정부정책과장 이세영 △ 지역공동체과장 명창환 △ 주소정책과장 김정훈 △ 재정정책과장 김성기 △ 회계제도과장 김중범 △ 지방세정책과장 김영빈 △ 지방세특례제도과장 서정훈 △ 환경원자력협업담당관 박현용 △ 재난대응훈련과장 박용중 △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장 박후근 △ 국가기록원 공개서비스과장 김형국 △ 대전청사관리소 시설과장 강광혁 △ 이북5도 황해도 사무국장 이길영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기획과장 김석현

◆고려대 △ 공과대학장 겸 공학대학원장 겸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겸 테크노콘텐츠원장 김중훈
◆전북대학교병원 △ 진료처장 김정렬 △ 치과진

료처장 유미경 △ 기획조정실장 이승욱 △ 교육수련실장 정명자 △ 대외협력실장 양종철 △ 의료관리실장 정한정 △ 진료정보실장 황승배 △ 고객지원실장 박성주 △ 사무국장 김병진

부음

▲이준진씨 별세. 최재을(메트라이프 전무)씨 모친상 = 12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14일 02-2258-5940
▲이시희씨 별세. 이성선(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스사대장)씨 부친상 = 11일 오후, 충남 보령시 웅천장례식장 2빈소, 발인 13일 오전 8시. 041-931-4447
▲이동씨 별세. 임대근(현대해상 부장)씨 모친상 = 11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3일 낮 12시 02-2227-7500



경남은행,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 BNK경남은행은 12일 지역 저소득·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해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김강노인복지관(창원시 마산합포구 평화동)에서 진행된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에는 홍보부 직원 8명과 (사)대한미용사회 경상남도지회 회원 5명 등이 참여했다. /경남은행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종훈, 함철, 김광성, 노효동.

2018 중앙언론동문상

이종훈·함철 등 선정

중앙대 언론동문회(회장 임광기, SBS 논설위원)는 지난 11일 중앙대에서 총회를 열고 이종훈 동아일보 뉴센테니얼본부장, 함철 KBS 선거방송기획단장, 노효동 연합뉴스 국제뉴스1부장을 '2018년 중앙언론동문상'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 특별상은 김광성 한화 에스테인트 대표가 수상자로 뽑혔다. 중앙대 언론동문회는 매년 언론문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동문 언론인을 선정해 중앙언론동문상을 시상하고 있다.

‘4개 시안+교육 가치관’ 설문으로 대입제도 바꾼다

2022 대입개편 초읽기

14일 두차례 숙의토론회 돌입
시나리오 이외 개편안 가능성도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확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편안을 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미치는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회와 설문조사가 본격 진행된다.

특히 설문방식에 따라 어떤 권고안이 나오게 될지 주목된다. 4가지 시나리오 이외의 제3의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550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1차 숙의토론회가 권역별로 이번 주말(14일~15일) 진행된다. 2차 숙의토론회는 27일~29일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두번의 숙의토론회 중간에 세 차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예정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수능 전과목 절대 평가 실시·학생부종합전형 축소폐지·학생부교과전형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왼쪽),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회원들은 ‘정시 45% 이상 선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 시민참여단 설문이 진행되고, 설문 결과 권고안의 핵심 내용을 정할 것으로 보여 설문 방식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간담회를 열고 설문이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사지선다형 설문을 통한 다수결은 아니라고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각 시나리오별 설문 항목에 대한 매우찬성-찬성-보통-반대-매우반대의 5점 척도로 한 선호도 조사(리커트 척도)에 참여하고, 이 결과를 공론화위원 중 조사·통계 전문가가 분석해

결과를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섭 공론화위 대변인(한양대 교수)은 12일 본지와 통화에서 “4가지 시나리오별 선호도와 함께 교육과 입시에 대한 가치를 묻는 설문 문항 30여가지가 진행된다”면서 “이를 종합해 결국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마음을 담은 권고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교육과 입시에 대한 가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 대해 “사전 공개될 경우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고, 4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가 결정되느냐는 질문엔 “설문 결과로 나온 수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추정할 수 없다”고 했다.

각 시나리오별 선호도와 교육과 입시에 관한 가치를 묻는 설문 결과에 따라 당초 제안된 4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가 아닌 각 시나리오가 중첩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시나리오별 선호도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한 시민참여단의 가치를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됨에 따라 현실과 괴리된 이상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해 성, 연령, 지역 등 인구 특성을 고려해 18만5000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중 2만명이 조사에 응했고, 시민참여단 참여의사를 밝힌 6636명 중 550명을 뽑았다.

앞서 공론화위는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기반으로 ▲(1안)수능 위주 전형을 45% 이상 선발하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 ▲(2안)수시·정시비율 대학 자율, 수능 절대평가 ▲(3안)수시·정시대학 자율, 수능 상대평가 ▲(3안)수능위주전형 확대, 학생부교과·종합전형 비율 균형, 수능 상대평가 유지 등 4가지 대입개편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주로 학생 선발의 변별력과 관련한 각 시나리오별 찬성과 반대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한국외대

수시모집 설명회 개최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김인철)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을 한 달여 앞둔 8월 10일 오후 1시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 오바마홀에서 수험생들의 수시지원 전략 최종 점검을 위한 설명회(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한국외대 - 라온지톡 & 수시 파이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한국외대 대표학과 교수

의 전공 안내, 졸업생 선배의 취업사례 소개를 비롯해 수시합격을 위한 3종 패키지(자기소개서 특강, 논술 특강, 모의면접)가 제공된다.

또 이석록 입학사정관실장의 ‘2019학년도 수시 지원전략 핵심 포인트’ 특강과 사전 온라인 신청자 100명에게 한해 1인당 10분간 진행되는 입학사정관과의 1대1 모의면접 체험, 행사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100명 대상 1대1 입시상담 등이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 참가 신청은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한국외대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다.

상명대

예비창업가 돕는 ‘창업카페’

상명대학교(총장 백웅기) 산학협력단 리빙랩연구소가 은평구와 손잡고 예비창업가와 창업에 관심있는 구민들에게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창업카페를 운영한다.

서울시가 지원하고 은평구가 운영하는 ‘서울창업카페 은평블광점’의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상명대는 지난달 29일 은평구와 카페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창업카페 은평블광점은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가와 일반시민들에게 정보제공과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창업 관



/상명대

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네트워킹을 위한 공간을 지원하는 등 창업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위치는 불광역 7번 출구에서 60m 거리로 은평 청년새싹공간(B동 2~3층) 내에 56평형 규모로 코워킹 스페이스, 상담실, 휴게실, 세미나실 등을 갖춰 오는 8월 개소할 예정이다.

인천대 녹색환경지원센터

‘인천, 환경in포럼’ 개최

인천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김진한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12일 오후 인천YWCA 대강당에서 ‘새로운 인천, 협치를 위한 환경정책 제안’을 주제로 제2회 인천, 환경in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지방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민간차원의 환경정책 과제를 제안한다는 취지다.

포럼에서는 조강희 환경브리핑연구소 대표가 ‘인천시 환경정책에 대한 민선 6기



평가와 민선 7기 과제’에 대해, 서중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가 ‘인천의 환경행정 및 정책 진단’을 주제로 각각 발제하고 5개 환경분야를 정한 지정토론회를 벌였다. 김진한 센터장은 포럼에서 제안된 환경정책을 시 집행부에 전달해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올 수시, 수능 최저 없다... ‘단순’이 특징

메트로가 꼭 짚는 대입전략

⑥ 한양대

학종 합격자에 ‘2~4등급’ 다수

특기자 전형에 학종 40% 추가

한양대 입시의 특징은 전형별로 전형 요소가 아주 단순하다는 점이다. 즉 수시의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학생부교과전형은 교과 100%,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 종합평가 100%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따라서 한양대 입시에서는 전형별 평가요소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격이 가능하다.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교과성적 이외에 다른 변수가 없으므로 내신성적 기준 합격선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전년도 합격자 등급 평균은 인문계열이 1.23등급, 상경계열이 1.20등급, 자연계열이 1.21등급이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면접, 수능최저학력 기준 없이 학생부종합평가 100%로 선발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따라서 면접 붙음 등으로 지원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적정·하향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다소 신중히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업역량(적성) 50%와 인성 및 잠재력 50%의 비율을



김명찬 종로학원 평가연구소장

적용하여 학생부를 종합평가한다. 학업역량의 경우 학생부 교과 등급을 단순 평가하지 않고, ‘수상경력’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학업역량을 평가한다.

인성 및 잠재력의 경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에서 확인되는 지원자의 의사소통·창의적사고·자기주도·공동체 의식 역량을 평가한다. 합격자 내신 등급은 1~7등급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며, 2~4등급대의 학생이 다수를 차지했다.

논술전형에서는 논술성적 70%와 학생부종합평가 30%의 비율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반영하지 않는다.

논술문제 유형을 보면 인문계열은 인문사회통합형, 상경계열 논술은 인문사회통합형에 수학 논술이 혼합된 유형 그

리고 자연계열은 수학 단독형이다. 합격생 논술 평균점수는 인문계열이 95.2점, 상경계열이 66.5점, 자연계열이 76.5점이었다.

특기자전형 중 모집인원이 가장 많은 글로벌인재(어학특기자)전형의 경우, 1단계에서는 외국어에세이 100%로 3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외국어 면접 60%와 학생부종합평가 40%로 최종합격자를 정한다. 전년도에는 2단계에서 외국어 면접 100%로 합격자를 결정하던 것을 올해부터 ‘학생부종합평가’가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에 학생부 관리도 중요하다.

정시모집은 전년도와 동일한 ‘가, 나’군 분할모집을 실시한다. 가군은 수능 100%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나군은 수능 90%에 학생부교과 10%의 비율로 학생을 선발한다. 영역별 반영비율은 전년도와 동일인데, 인문계는 국어 30%, 수학(나) 30%, 영어 10%, 사탐 30%이고, 자연계는 국어 20%, 수학(가) 35%, 영어 10%, 과탐 35%로 수학과 과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장학금 혜택이 있는 ‘다이아몬드7 학과’(인문: 행정학과, 정책학과, 파이낸스 경영학과, 자연: 융합전자공학부,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 에너지공학과, 미래자동차공학과)는 대부분 가군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가군이 나군에 비해 합격선이 높다.

2030 “해외취업, 기회된다면 하고싶다”

2030세대 성인남녀 4명 중 1명은 현재 해외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잡코리아와 시원스클럽이 20~30대 성인남녀 1583명을 대상으로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에 달하는 83.4%가 ‘기회가 된다면 해외취업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런 답변은 20대(83.4%)와 30대(83.9%) 모두 비슷한 수준

으로 높았고, 남성(81.1%) 보다는 여성(84.4%) 응답자가 소폭 높았다.

해외취업을 하고 싶은 이유(복수응답) 중에는 ‘근무여건이나 복지제도 등이 잘 갖춰져 있을 것 같아 워라밸을 위해’(83.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일하면서 여학 실력 향상 등 자기계발을 할 수 있어서’(54.9%)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는 응답자도 과반수 이상으로 많았다. 이외에는 ▲국내 취업이 어려워 더 많

은 기회를 찾아보고 싶다(45.0%)거나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29.1%) 해외취업을 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반면, ‘삶의 터전을 해외로 옮기기 위해(해외이민 고려)’ 해외취업을 하고 싶다는 응답자는 15.8%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체 응답자 중 ‘현재 해외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있다’는 응답자는 25.8%로 10명중 2명 정도였다. 이들이 해외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것 중에는 ‘영어회화’가 복수선택 응답률 60.3%로 가장 많았다. /한용수 기자

함께가 힘이다 하나가 힘이다

하나금융그룹은 믿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의 힘을
각자가 아닌 하나된 힘을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금융그룹



프랑스 vs 크로아티아 ... '20년만의 리턴매치'

16일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

프랑스, 킬리안 음바페 등 젊은피 앞세워 크로아티아, 3경기 연속 '연장혈투' 변수 14일 잉글랜드 vs 벨기에 3·4위전 격돌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이 종착역을 앞둔 가운데 대망의 결승전과 3·4위 결정전 대진이 완성됐다.

크로아티아는 12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와 준결승에서 1-1로 맞선 연장 후반 4분 마리오 만주키치(유벤투스)의 역전 결승 골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올랐다.

4강 두 경기가 모두 끝나면서 마지막 결승과 3·4위전 상대도 결정됐다.

크로아티아는 오는 16일 오전 0시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프랑스와 우승컵을 다툰다.

4강전에서 패배한 잉글랜드와 벨기에에는 하루 앞선 14일 오후 11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타디움에서 맞붙는다.

크로아티아와 프랑스는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20년 만의 리턴매치다.

유고슬라비아에서 독립하면서 1993년 FIFA 회원국이 된 크로아티아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 처음 출전해 준결승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켰다.

당시 크로아티아는 6골로 득점왕에 오른 다보르 슈케르를 앞세워 8강에서 '전차 군단' 독일을 3-0으로 완파하는 등 맹위를 떨쳤다.

하지만 4강에서 만난 개최국 프랑스에 1-2로 분패했고, 3-4위전에서 네덜란드를 2-1로 제압하고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 때의 성적을 발판으로 크로아티아는 1999년에 FIFA 랭킹 3위까지 오르는 등 전성기를 맞기도 했다.

크로아티아는 이후 월드컵 무대에서는 이렇다할 성적을 내지 못했다. 본선 무대를 밟은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06년 독일 월드컵 때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고,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때는 본선에 나가지 못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선 본선 진출에 성공했지만 역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만주키치와 루카 모드리치(레알 마드리드), 이반 라키티치(FC바르셀로나) 등 마지막 황금세대를 앞세운 크로아티아는 벨기에를 4강에서 1-0으로 꺾은 '되블레 군단' 프랑스를 상대로 설욕을 노

린다.

프랑스는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와 폴 포그바(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젊은 피들을 앞세워 1998년 자국 대회 우승 이후 20년 만의 정상 탈환에 도전한다.

프랑스는 하루 먼저 4강 경기를 마쳐 체력적으로 휴식할 시간을 가진 반면 크로아티아는 세 경기 연속 연장 혈투를 치러 선수들이 지쳐 있다는 점이 결승 결과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3-4위전에서는 잉글랜드와 벨기에가 이번 대회에서 다시 만난다.

잉글랜드와 벨기에에는 이번 대회 G조에 조별리그 3차전에서 벨기에가 1-0으로 승리하며 조 1, 2위 희비가 엇갈린 인연이 있다.

잉글랜드의 간판 공격수 해리 케인(토트넘)은 6골로 득점 부문 선두를 달리지만 두 경기 연속 득점포 침묵을 지킨 가운데 4골을 기록 중인 벨기에의 로멜루 루카쿠(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골드부트를 건 골잡이 대결을 벌여야 한다.

잉글랜드는 1966년 자국 대회 우승 선화를 재현에 실패했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이고, 벨기에 역시 1986년 멕시코 대회 4위를 넘어선 월드컵 출전 사상 최고 성적인 3위에 도전한다.



'축구 종가' 잉글랜드, 우승 꿈 무산

4강전서 크로아티아에 2-1 패

'축구 종가' 잉글랜드가 꿈꿨던 52년 만의 월드컵 우승 도전은 크로아티아의 일격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잉글랜드는 12일(한국시간) 열린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4강에서 경기 시작 5분 만에 터진 커런 트리피어(토트넘)의 그림 같은 프리킥 선제골로 1-0 리드를 잡을 때만 해도 우승을 차지했던 1966년 자국 대회 이후 52년 만의 월드컵 결승 진출 꿈이 무르익는 듯했다.

잉글랜드는 전반까지만 해도 60%대의 높은 볼 점유율을 유지하며 전반을 1-0 리드로 마쳐 결승행 티켓 획득 기대감이 컸다.

앞서 8강에서 스웨덴을 1-0으로 꺾고 준결승에 올랐을 때 '축구가 집으로 돌아오 있다'며 축구 종가의 자존심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다르지 않았다.

영국 현지에서도 회사원들 사이에 개러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입을 조끼 패션이 유행하는 등 우승 기대로 한껏 고무됐다.

잉글랜드는 1996년 자국 대회 우승 이후 1990년 이탈리아 대회 4위를 빼고는 결승 문턱에 가보지 못했던 터라 이번이 2014년 브라질 대회 조별리그 탈락 수도

를 털어낼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다.

하지만 잉글랜드의 결승 진출 꿈은 크로아티아의 투혼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후반 초반까지만 해도 잉글랜드의 공격 주도권을 잡고 있었지만 간판 골잡이 해리 케인(토트넘)을 비롯한 선수들의 골 결정력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

특히 6골로 득점왕 기대를 부풀리는 케인의 2경기 연속 득점포 침묵이 뼈아팠다.

스웨덴과 8강전에서 골 소식을 전하지 못했던 케인은 크로아티아와 4강전에서도 몇 차례 득점 찬스가 있었지만 끝내 골문을 여는데 실패했다.

특히 전반 29분에는 케인이 제시 링가드의 패스를 받아 골지역 왼쪽에서 절호의 득점 기회를 잡고도 두 차례 이어진 슈팅이 모두 상대 골키퍼 다니엘 수바시치의 선방에 막힌 게 결정적이었다.

잉글랜드가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자 크로아티아의 반격이 이어졌다. 크로아티아는 후반 23분에 나온 이반 페리시치(인터 밀란)의 동점골로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 간 뒤 연장 후반 4분 만주키치의 결승 골로 2-1 승리를 거두는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뮤지컬·클래식·콘서트...

무더위 '문화 바다'에 흠뻑 빠져볼까

세종문화회관

번지점프를 하다·강아지똥 등 방학·휴가 맞춰 프로그램 마련

서울 세종문화회관은 여름방학과 휴가 시즌을 맞아 뮤지컬, 클래식, 강의를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동명의 영화를 뮤지컬로 만든 '번지점프를 하다',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놀이극 '베토벤의 비밀노트', 여름방학 대표 클래식 콘서트 '2018 그랜드 썸머클래식', 대중을 위한 합창 콘서트 '신나는 콘서트', 청소년 성장통 뮤지컬 '오늘 하루 맑음' 등 에듀테인먼트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즐길 수 있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세종 꿈나무 예술탐험대' 등 예술 감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를 즐기며 교육도 함께 할 수 있는 플레이케이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한야광 포스터. /세종문화회관

북서울꿈의숲에서는 원작 동화 '강아지똥'을 무대로 옮긴 어린이 연극 그림동화와 클래식 음악을 해설과 함께 연주하는 '클래식 온 스크린&스쿨'이 준비되어 있다.

돈화문국악당에서는 전통 탈춤의 매력에 조화롭게 어우러진 '있는 그대로의

힘'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획공연 포커스 '가면회'가 펼쳐진다.

성인과 직장인을 위해 점심시간을 이용한 예술강의도 준비됐다. 르네상스의 발상지 피렌체로 떠나는 이탈리아 영화기행 '한창호의 트립 투 이탈리아',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속이야기를 시몬 불리바르 심포니 실황으로 만나는 '전람회의 그림', 인상과 화가 에드가 드가의 작품 속 실제 발레리나를 주인공으로 한 '드가의 작은 무희 이야기' 등 보고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강의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세종문화회관에는 저렴한 가격에 식사, 숙박,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한야광 패키지' 등의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서정협 세종문화회관 사장 직무대행은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감수성을 키우고 호기심을 채워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21 | 해질 / 19:54

7월 13일

음력: 6월 1일

수도권 날씨

32~24°C

운동 지수: [진행률]

빨래 지수: [진행률]

세차 지수: [진행률]

외출 지수: [진행률]

지역별 날씨: 연천 23/31, 동두천 23/32, 가평 23/32, 파주 23/31, 서울 24/32, 양평 24/33, 인천 24/30, 수원 24/32, 용인 24/32, 평택 24/3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40편 '무대위'

신작 19편·기존작 6편·상설 15편 9월 5일부터 '향연·묵향' 등 공연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국립극장이 12일 '2018~2019 레퍼토리시즌'을 발표했다.

오는 9월 5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299일간 이어지는 이번 시즌에는 신작 19편, 레퍼토리(기존 우수 작품) 6편, 상설 15편 등 총 40편이 무대에 오른다. 올해 역시 이 시대 가장 주목받는 예술가들과의 '전통 실험'이 핵심이다.

이양희 공연기획부장은 이날 서울 중

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오름극장 리모델링과 지하주차장 공사로 인한 공간 활용 제약, 예상보다 길어진 극장장 공석 등으로 고민을 많이 했다"며 "새로운 걸 시도하기보다는 전통에 기반을 둔 현대 공연물을 만드는 기본에 충실하려 했다"고 시즌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향연'과 '묵향' 등으로 한국 무용매진 사례를 끌어낸 정구호 연출의 국립무용단 신작 '색동'이 가장 먼저 눈길을 끈다.

정 연출은 "'향연'이 70%의 전통에 30%의 모더니즘을 섞은 작품이었다면

'색동'은 모더니즘 비율이 50%까지 늘어난다"며 "다양한 전통춤 대가들과 안무를 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색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정 연출의 장기인 색의 유희가 그 어느 작품에서보다 뚜렷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무용단은 현대무용가 김철진과 함께 하는 신작 '더 룸'(The Room)도 준비 중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김철진은 2008년부터 벨기에 피프팅 무용단에서 활동하다가 인기 춤 경연 프로그램인 '댄싱9-시즌2' 우승으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다. 장르 경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창작 활동으로 주목받는 안무가다.

/오진희 기자 valere@



[산업] 국내 시스피커 시장 캐나다 제치고 세계 5위 '코얏' 04



[유통] 포카칩 30주년 누적매출액 1조4000억원 돌파 Life



장안평 자동차 산업 중심지로... 건축규제 완화로 재생사업 탄력

개발 규모 확대·규제 완화 미래자동차혁신센터 조성해 1만1000개 일자리 창출할 것

서울 성동구 장안평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각종 규제 완화로 추진력을 얻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0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고 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시는 성동구 용답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장안동 일대(면적 52만 3805㎡)의 일부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대상지 내 천호대로변에 있는 띠 형태의 7m 구간이 3종 일반주거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아울러 시는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개발 규모를 확대했다. 자동차 산업의 시설 특



성(정비, 부품판매, 차매매 등)을 고려해 건축물의 건폐율·높이·용도 등의 규제를 완화했다. 산업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상인들에게는 공공임대 공간을 보급할 계획이다.

도심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에는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지역산업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장안평 지역은 중고차 매매·부품·정비업 밀집 지역으로 지난 1970년대부터 서울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해 왔다.

시는 미래자동차혁신센터 조성과 지역산업 거점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2020년까지 1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중고차매매, 부품, 정비·튜닝 산업을 활성화하고, 인근 물재생센터와 연계해 중고부품 리사이클링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강맹훈 재생정책기획관은 "장안평 일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지역"이라며 "도시재생사업, 중고차 매매센터 재개발과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장안평 일대가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5살 생일 맞은 아이바오

12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생일을 하루 앞둔 암컷 판다 아이바오가 사육사들이 준비한 대나무와 꽃으로 만든 케이크와 특식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몰랑', 서울시 자원봉사 홍보대사 선정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캠페인 홍보

서울시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몰랑'을 시 자원봉사센터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참쌀떡 모양의 토끼종족 몰랑은 2012년 2월 카카오톡 이모티콘 스토어 입점을 시작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몰랑은 작년부터 EBS TV 만화로도 방영되고 있으며, 디즈니 등의 글로벌 채널에 시즌4까지 배급될 만큼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캐릭터다.

몰랑은 소속 캐릭터 회사 '하얀오리' 대표 윤혜지 작가가 재능기부를 결심해 서울시 자원봉사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됐다.

시 자원봉사센터는 13일 오전 11시 캐릭터 회사 하얀오리와 업무 협약을 맺는다. 몰랑은 향후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 활동을 하게 된다.

몰랑은 18~22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8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에서 안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캐릭터 홍보대사 '몰랑' 이미지. [서울시]

묻는 사회, 안전한 사회,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안녕하세요' 캠페인에 참여해 첫 공식 홍보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안승화 센터장은 "이번 몰랑 캐릭터 홍보대사 위촉으로 캠페인 홍보는 물론 시민 자원봉사자에게 몰랑과 함께 즐겁고 의미 있는 자원봉사의 경험을 선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우리 구청 소식

마포구청장 주민센터 순회... 구민과 대화 나눈다

서울 마포구는 16~20일 16개 전 동 주민센터에서 구청장과 주민이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12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지역구 시·구의원, 동 주민자치위원장, 노인회장, 학교장, 119안전센터장 등 각종 직능단체장과 구민들이 모여 마을 현안과 요청사항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구는 제안된 주민 의견을 향후 구 정책과 각종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 마포구는 민선 7기 출범을 맞아 전 동 주민센터에서 구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마포구청]

종로구, 중소기업인에 최대 2억원 융자 지원



종로

대상은 관내

서울종로구는 관내 중소기업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사업등록을 필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자 등이다. ▲융자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업체 ▲주점·음식점·부동산 등의 서비스업과 그밖의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김현정 기자]

"환기장치 쓰고 계신가요" 10분이면 공기질 개선

환기장치 사용률 20%에 그쳐 서울시, 사용법·관리요령 안내

서울 시내 공동주택의 20%에 해당하는 30만 5511세대에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음에도 기계 사용법이나 존재 여부를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6월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세대에서 환기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06년 이후 세워진 신축 공동주택(100세대 이상)에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 화면.

환기장치를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환기장치는 미세먼지 등 외부의 탁한 공기를 필터링해 깨끗한 공기는 유입시키고 조리 등으로 실내에서 발생한 나쁜 공기는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기장치를 시간당 10분 내외로 가동하면 공기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이때 전기료는 월 3000~5000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환기장치 사용법과 관리 요령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나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집안에 설치된 환기장치를 잘 이용하기만 해도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며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를 대비해 환기장치 사용법과 관리 요령을 잘 익혀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관광공사, 휴가철 맞아 '여름 페스티벌'

관광벤처기업 여름 테마상품 판매

한국관광공사가 14일~15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관광공사 서울센터 1층 야외마당에서 '2018 관광벤처 여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오후 3시~8시 진행되는 페스티벌 현장에서는 50% 이상 할인율로 여름 테마상품을 판매하는 '벤처기업 여름 여행상품 특가전'도 열린다.

행사장에서는 '미니보트 경주'와 '수중드론 이미지찾기' 등 게임을 즐길 수 있다. 페스티벌에 참가한 관광벤처기업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무료 체험 이벤트도 진행된다.

또한 체험프로그램 참가, 관광벤처기

업 상품 구매, 특가 여행상품 예약 등 페스티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문객들에게는 기념품도 제공된다.

관광벤처기업은 관광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창의적 관광활동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관광산업 성장과 외연 확대를 위해 2011년부터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으로 매년 선발·육성하고 있다.

함경중 한국관광공사관광기업지원실장은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방문객들이 관광벤처기업의 참신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하고 소비하면서 국내여행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관광벤처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범중 기자 jaker@]



성명서

‘한기총 여성인권 유린 및 여성인권 묵살 강력 대응’

강제개종 · 성폭력으로 여성인권 유린하는 한기총을 강력 규탄한다!
반종교! 반사회! 한기총! 즉각 해체하라!

“ (사)세계여성평화그룹(이하 IWPG)과 세계여성인권위원회는 신(神)의 이름을 앞세워 성폭력을 일삼고, 신체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강제 개종을 방조하는 한기총의 ‘인권유린’이 법과 상식을 넘은 반(反) 헌법적 행태임을 선언한다. 이에 (사)세계여성평화그룹(이하 IWPG)과 세계여성인권위원회는 2018년 7월 10일 ‘한기총 여성인권 유린 및 여성인권 묵살 강력 대응’ 성명을 발표한다. 아울러 한기총의 인권유린을 규탄하고 세계 여성인권 회복 캠페인에 나설 것을 공표한다. ”

01 분향소 세웠다고 고소하는 한기총은 목자로서 부끄럽지 않나? 관련 고소 즉각 철회하라!

IWPG는 지난 2월 강제개종 장소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숨진 故 구지인양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한기총 앞에 분향소를 세웠다. 이에 한기총은 세운 분향소를 불법이라며 경찰에 고소해 망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는 사랑을 실천해야 할 종교단체가 망자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지 못할망정 한 번 더 죽인 것과 다르지 않다.

강제개종 사망 피해자의 넋을 위로한 것은 불법이고, 강제개종을 옹호하고 방조하는 것은 합법인가? 한기총은 망자를 두 번 죽이는 황당한 고소를 즉각 철회하라!

02 성폭력 목회자 징계하고, Me Too를 외치는 피해 여신도들에게 사죄하라!

한기총의 수많은 목회자가 여신도에게 성폭력을 자행하고, 성경을 악용하여 피해 사실조차 알리지 못하게 하는 등의 추악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그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한기총은 성폭력 목회자 실태를 자체 조사해서 강력히 징계하고, 조속히 시일 내에 관련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03 ‘돈벌이 강제개종’ 통한 ‘여성 인권유린’ 즉각 중단하라!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강제개종’이 웬 말인가? 한기총의 뿌리인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자신을 거스르는 사람을 모두 ‘이단, 마녀’로 몰아 죽였다. 오늘날 한기총에도 강제개종 살인자 칼빈의 망령이 함께하는 것인가?

이미 2명의 대한민국 여성이 강제개종 때문에 숨졌고, 현재도 매달 100여 명의 여성이 강제개종 피해를 당하고 있다. 피해 여성들은 감금 납치과정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고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한기총은 강제개종 목회자들의 반헌법적 행태를 알고도 이를 방조하고 있다.

한기총은 여성의 인권과 신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강제개종’ 목회자를 자체 징계하고 강제개종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하라!

04 부정부패 만연한 한기총은 해체하라!

한기총의 뿌리인 장로교는 일제강점기 신사 참배를 주도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성경의 제1계명을 범하는 반종교 행위를 했다. 장로교를 중심으로 출범한 한기총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정치와 야합해 권력의 하수 역할을 해왔다. 또 한기총 목회자들은 대표회장직과 목사 안수증, 학위 등을 돈으로 사고파는 것은 물론, 여신도 성폭력과 살인, 도적질, 사기 등 온갖 추악한 반사회 행위로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에 우리 IWPG와 세계여성인권위원회는 종교단체의 탈을 쓰고 추악한 반종교, 반사회 행위를 자행하고 방조하는 한기총의 해체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IWPG와 세계여성인권위원회는 ‘강제개종 추방과 목회자 성폭력 추방’ 등 세계 여성인권 회복을 위해 캠페인에 나설 것을 공표한다.

2018. 7. 10.

(사)세계여성평화그룹 회원 및 세계여성인권위원회 회원 일동